東亞日報
九日夕刊
本紙八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社說

東京政局의 今後

[illegible]

三

그러면 齋藤內閣의 뒤에 오는 者는 무엇이냐. 旣成政黨中 民政黨은 安達一派의 新黨運動으로 그 一身이 묶어지고 다시 三木氏 等의 脫黨運動이 있어 이미 風化作用이 餘諸程度로 일고 있으니 그 政黨이 未遠에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政權이 돌아갈 理由가 萬無하며 政友會가 三百餘名의 多數를 가지고 野心滿滿한 鈴木總裁 下에 [illegible] 있으나 日本의 政情이 그들의 單獨內閣을 許치 안는 것 같다 [illegible]

張學良의 辭意表明은 單只表面的의 것

◇軍事政務는 各委員會에◇

順承府의 緊急會議

【北平八日發聯合】張學良은 [illegible] 北平의 [illegible] 七日夜 緊急會議를 開하고 [illegible] 左記를 決議하얏다

一、張學良下野後 軍事는 軍事委員會가 其責에 任할 것

二、北平政務委員會는 各委의 政務를 [illegible]

三、[illegible] 治安維持에 任케할 것

四、中央에서 河北及熱河에 財政的援助를 하게할 것

【東京八日發電通】七日夜 [illegible] 不成하고 [illegible] 張은 不肯하고 今夕下野通電을 發하기로 되엇다

【南京八日發聯合】南京의 國民政府는 昨夜張學良의 下野通電을 接受한 結果 今朝中央執行委員會常務委員會를 開하고 [illegible] 蔣介石에게 對하야 電報로 [illegible] 張學良은 이미 軍事委員會에 委任하얏다 한다

張學良辭職 實質上無變

日本軍部側觀測

【東京八日發電通】張學良의 辭職에 關하야 軍部에서는 말하되 何等公報는 업스나 汪精衛의 辭職勸告가 잇섯다하니 아마 事實일것이다 辭職이라하드래도 張學良이 有하는 公職은 河北、熱河公署의 [illegible] 平津地方에 [illegible] 實質何等變化가 업사 [illegible]

何宋等의 慰留도 無効

汪精衛의 辭意鞏固

行政院長後任엔 于右任有力

汪派總退却도 在邇?

【上海八日發聯合】南京에서 [illegible] 汪精衛를 訪問하고 [illegible] 宋子文等도 參加하야 汪의 辭職을 翻意하야 [illegible] 汪은 張學良과 함께 辭職한다고 聲明하야 노코 自己만 머믈러잇슬수 업다하야 依然辭意 [illegible]

檀君聖跡巡禮 【十】

玄鎭健

[illegible] 것은 再昨年 [illegible] 金[illegible]氏一行이 [illegible] 뒤에 오는이를 爲하야 [illegible] 로 남긴것임을 미리 들어알앗다. 소삽한 이길녁에 얼마나 有感有助한가。

[illegible] 가면 [illegible] 앞질을 바라보며、우리는 岩上에서 小憩하얏는데、그때 [illegible] 이야기를 하엿다。

石窟이 잇서、俗稱假檀君窟이라하는데、그 由來는 이러하다。녯날 平安監司나 [illegible] 到任을하면、依例 [illegible] 檀君窟을 觀參하는법인데、발과 손으로 긔어올라도 危險한길을 [illegible] 시고 行次하는바람에 죽어나는이는 僧侶들이엿다。고지식하게 血汗을 흘리다가 못하야、가깝고 편한 거게를 檀君窟이라고 속여 拜禮를시킨 外다에 假人字가 부튼것이라한다。지금도 當時監司某某들의 刻字가 뚜렷이 남아 있다든가。[illegible] 正義다。現麥의 記念刻字가 그 글자의 살아지기까지 人의 嘲笑와 [illegible] 이야、그들이를 [illegible] 하얏스랴。

[illegible] 해보고도 시 [illegible] 여거에서 가자면 [illegible] 이길에 그런것을 보는것이 돌이어 不謹하다는 생각이 나서 [illegible] 檀君窟을 [illegible] 洞을 지나 降仙臺에 올라다가、넘어온 [illegible] 바라보고、[illegible] 감을하며 [illegible] 을 처어다보고 [illegible] 이다

熱河에 最後通牒

日本의 斷乎處置豫想

錦州○團에서

【錦州七日發聯合】錦州○團은 民國側의 不誠意에 憤激하고 石本氏自力救出手段에 出하기에 先하야 熱河의 湯玉麟에 最後通牒을 發하얏다 進展은 重大視된다

【北平七日發聯合】日本當局의 對張學良態度가 더욱 硬化함에 伴하야 錦州、上海兩領事事件前의 低氣壓에 鑑하야 不遠한 將來에 日本軍이 반드시 斷乎한 處置에 出하리라는 觀察은 日下外中人을 不問하고 [illegible] 바로되엇다 그리고 平津의 範圍가 山海關附近에 不止하고 平津地方에도 及할는지 未知이나 人心은 極度로 危懼의 念에 사하는 此際 汪精衛의 投한 一彈은 張學良에게 眞正으로 致命的의 것으로 張學良은 今후 進退에 窮하야 北中의 變動을 생각케하는 形勢로 되엇다

要人等北平滯在

【北平八日發電通】張學良의 下野決定으로 商震、徐永昌、韓復榘、宋哲元諸氏는 時局의 重大變化를 念慮하고 當分間 北平에 滯在하기로 決하얏다

對日抵抗에 一致

北平將領會議에서

國府에서 東北義勇軍援助로 山砲迫擊機等을 輸送

【北平七日發電通】北平滯在中인 各師將은 六日深更參集하야 汪精衛의 通電에 對하야 張學良과 緊急會議를 開한結果 各將領은 汪精衛의 辭職은 河北大局에 何等關係가 업고 河北은 現狀을 維持하야 絶對로 動搖치 말고 어데까지 對日抵抗策을 遂行할것이라고 意見에 一致하얏다

【東京八日發聯合】南京七日發陸軍省着電에 依하면 南京政府가 東北義勇軍을 援助中임은 汪兆銘의 辭職과 同人의 張學良辭職要求通電에 依하야 內幕을 暴露하는바 七月二十日 南京政府는 小銃彈藥二十五萬發을 又兩三日前 小銃彈藥五十萬發 小砲三門 迫擊砲並手榴彈若干을 濟南을 經하야 北送하야 義勇軍에 交付하고 熱河를 經하야 關外로 送한다는 것이다

長文電報로 張의 罷免强調

辭表提出한 汪精衛

【上海八日發聯合】汪精衛는 今日蔣介石以下 國民政府 中央要人에게 左와 如한 電報를 發하고 張學良을 罷免시키라고 强調하얏다

余는 昨日 張學良에게서 電報를 受하얏는데 張學良은 自衛를 爲하야 費用이 엇는 즉 中央에 軍費를 要求한것이라고 逕하얏다 大體 我國의 國稅는 中央에 送附할것인데 張學良治下의 河北、熱河、察哈爾其他 各省은 今日까지 一分도 中央에 送치안코 모다 張學良이 橫取하얏다 그런 아니라 이 軍費補給을 中央에 要求하고 中央이 財源枯渴로 未送할 時는 責을 中央에 歸하는 것이 아니냐 [illegible]

[illegible] 東北國土를 拋하고 [illegible] 不知하는 者는 我國人이다 [illegible] 下의 政府、東北部民地方民은 [illegible] 抵抗하는 唯一手段이다 [illegible]

【南京八日發聯合】行政院長汪精衛의 辭職에 伴한 後任은 于右任이 有力視된다 [illegible] 汪派의 國民政府總退却도 [illegible] 蔣介石의 歐、陳友仁等은 汪派의 [illegible] 張學良의 下野를 要求하기로 [illegible] 汪派와 [illegible] 形勢는 자못緊張하야 [illegible] 迫近한듯하다

中央常務會議

張逮捕案討議

結局蔣이 默殺?

【南京八日發電通】國民政府는 八日午前九時 [illegible] 中央常務會議를 開하고 [illegible] 張學良逮捕決議에 對하야 討議 [illegible] 蔣介石의 意見에 依하야 [illegible]

汪은 辭意撤回?

張의 辭職實現後

陳紹寬海軍部長談

【上海八日發電通】汪精衛는 五時半 [illegible] 南京에서 來한 張學良의 [illegible] 陳紹寬은 記者에게 對하야 [illegible] 汪精衛는 張學良의 罷免에 [illegible] 될 可能性이 있다 [illegible]

北滿의 敗兵 約七千投降

馬占山戰死後

【奉天八日發聯合】馬占山戰死後의 北滿兵匪는 其後續續日本軍에 投降하야 昨日까지 日本部隊에 歸順한者는 反吉林軍을 合하야 約七千名에 達하얏다

伊首相의 外相兼攝은 聯盟脫退前提?

獨白兩國도 不遠間脫退?

英헤랄드紙力說

【倫敦八日發聯合】伊首相무솔리니氏가 最近그랑디外相 辭任으로 外相을 兼承하야 外相兼攝한 事實을 力說하얏다 또 데일리 헤랄드紙 記者도 昨日 [illegible] 今日英國 [illegible] 指摘하고 [illegible] 記者는 [illegible] 伊國이 國際聯盟에 [illegible] 獨、白二國도 不遠間聯盟을 脫退[illegible] 하리라는 說이 [illegible]

滿洲國政府 治外法權撤廢를 十一月末中外에聲明

【奉天八日發電通】滿洲國政府는 要求以前으로 國內法院의 充實、監獄의 改善、外國人의 收容、各司法機關의 新設等 [illegible] 十一月末 治外法權撤廢를 中外에 聲明하고 于先最先으로 日本에 對하야 [illegible] 日本側 關係當局의 交涉을 開始하기로 되엇다

람프손英公使

再次民國에 歸任

【倫敦八日發聯合】現在歸國中인 駐中公使 람프손氏는 [illegible] 駐在 高等官의 [illegible] 람프손氏가 今年再次 [illegible] 公使의 後任으로 [illegible] 歸任한다고 發表되엇다

消息

◇朴文熙氏 今朝北平으로 出發

橫說竪說

▼農村의 破滅、朝鮮의 民族의 [illegible] 이의 念願과 努力을 [illegible] 農村에 集中하야 ▼農村 振興이 이 [illegible] 救世主가 [illegible]

○

이번 올림픽 마라손에 [illegible] 앞에 들어왔다 [illegible] 一着하고 [illegible]

東海商業學校 秋期補缺募集

◎本校는 日本의 [illegible] 大都會名古屋市中區廣路町 [illegible] 入學은 [illegible] 二十五日까지

京城府 洞十二 京城事務所
平壤府府町二九 平壤事務所

パイロット萬年筆 特約店
京城鍾路貳丁目二十七番地
楠 商 店
電話光化門三九六番

カタログ進呈

パイロット
高級萬年筆

萬年筆의 五大條件
第一、尖端이 혀지 와의 良否如何
第二、金屬의 조이 혀 맛이不變如何
第三、軸의 輕快且合理化如何
第四、外觀의 美와 高貴優美如何
第五、世界一般市場의 信用如何

定價 ￥2.00 以上

クスリハ 山岸
京城府本町二丁目
山岸天佑堂

開城白蔘
開城池町二九七
開城物産委託共同販賣所

肺病專門 [illegible] 療養院

十錢均一
日本에서 第一 [illegible]

金壹千圓也 保險金受領廣告
[illegible] 長女 [illegible]

父 李在鎬

土金 石金 高價買入
京城 [illegible] 德力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飮酒家의 福音
過夏酒
小賣定價

上海特急
南京의 거리
무를 아비
[illegible]

前古未曾有의 北滿洪水

罹災民二十餘萬名 溺死者三萬餘名

村落、農作全滅、鐵道流失 宛然한 生地獄演出

【哈爾賓八日發聯合】 북만의 홍수는 전고미증유의것으로서 농작물은 물론전멸이오 각촌락도 모다전멸이며 행위불명자는 벌서三만명이상이나되는데 송화강연안의 각부락회복은 절망이오 동지철도남부선은 三천키로나 류실이되엇다

【哈爾賓七日發電通】 송화강제방은 一백미돌이나 터저서 침수가옥三만호, 리재민二十만명에달한다 시민은 전혀二층으로 피난한이외에 안전지대에 쇄도하는데 광경은 실로처참하다

【하르빈九일발전보】 금번의 미증유의 대홍수의결과 송화강(松花江)연안의 익사자는 三만인에 달한다고한다

하르빈시내의 침수정도는 재작일부터 十二척에달하야 九일정오까지 류실(流失)도궤가옥은 一백四十五호에 달한다고한다

그러하야 일만량당국은 밤새도록 경계중인데 하르빈의 신시가를 남기고는 전부 침수되엇다한다

街頭에 浮屍散亂 酸鼻慘의 傳家甸

【哈爾賓八日發電通】 전가전(傳家甸)의 침수는 각각증대하야 四만五천호의시가는 전부침수되엇다 도괴가옥一천二백호에달하고 행위불명자가 속출하야 시체는 가로상에 밀려나와서 그사상자수효는 상당할모양인데 자세한것은 알수업다

일만관헌과 적만회(赤卍會)등이 출동하야 구호에 노력중이데 마치 전장과가튼 대혼란을 일우고잇다

哈市의 三分二도 濁浪中에 沈沒

【哈爾賓八日發聯合】 합이빈도각각증수하야 三분지二는 탁수에 싸혀를바더 가옥붕괴 一천호 반괴二천五백호 익사자와 부상자 二천五백명에 달한다

損害額八百萬圓

【하르빈八일발전보련합】 금八일까지의동지외수해의손해는 이미八백만원에달하는중이데금후의증수상태여하에 딸하서는 그손해는 더욱 다수하리라한다

領事團善後會議

【哈爾賓九日發電通】 홍수로말미암어 합이빈령사단은 선후회의를열고 二시간이나 피난민구제에 대하야 협의한결과 만주국관헌을 원조하야 재민을 구제하기로햇다

그리고 만주국당국은 본월十四개조의 포고문을 발하야 인심동요를 방지하고 간상을 취체중이다

◇妙香山의 武陵瀑―萬瀑洞발재에 武陵洞이잇고 溪流를셔고 멧거름올라가지안하 數尺의 飛瀑이떨어지는데 나려치는물이 九互한岩石에 부서지며 宛然噴水의 奇景을 이루고잇다

依蘭市水沈 死者千餘名

【哈爾賓八日發電通】 송화강(松花江) 증수로말미암아 의란(依蘭)은 전혀물속에 잠기게되엇다 일본군의 조사에의하면 행방불명된자가 약一천명에 달하는데 대개는빠저죽은 모양이다

또연안一대의 통하(通河) 방정(方正) 석도하진(石道河鎭) 절전(折甸) 사참가(四站街)등은거의전멸이 된듯하다

동철과 만철사원의 철도대원은 七일오전六시 합이빈을출발하야 남부연선의 수재를시찰하고 도라와서 알에와가티보고하얏다

쌍성보(雙城堡) 채가구(蔡家溝)간의 류실선로는 一천미돌이상으로서 수리는 약一개월간을 요한다고하얏다

安危가念慮되는 三萬餘同胞! 松花江沿岸一帶에 朝鮮人分布狀態

북만一대의 미증유의 대홍수는 별항보도와갓거니와 이번수해의 중심지 송화강연안은 특히 조선동포가 만히사는곳으로서 그들의 생사는 자못 념려된다 송화강연안의 동포들의 거주지역과 수효는 알에와갓다

	男	女
▲哈爾賓	七二三九	六八三三
▲三姓	四〇	八
▲雙城	一六	一四
▲蔡家溝	一三	一五
▲三岔溝	九	七
▲木蘭	六二〇	三二〇
▲通河	五〇〇	三五〇
▲湯原	五七五	三四五
▲其他附近一帶	一九、五三三	一二、九九一
合計 三萬七千四百八十八人		

十三萬人避亂

【哈爾賓九日發電通】 수해리재민은 시내十二개소에 수용되엇스나 점점 증가하는 형세로서 학교가라는 대만원이다 九일까지 피난한사람은 로서아인 만주인 조선인합하야 十三만명이나된다

內鮮評論社員 恐喝罪로被檢

【대전】 일본소창(小倉)에발행소를두고 충남대전(大田)에서 발행하야오든 일문내선평론사(內鮮評論社)야야촌차랑(野村次郎)(二二)과 적만차랑(積萬次郎)(二二)은 공주의부호로 유명한 김갑순(金甲淳)씨의 고소로 지난九일대전서에 검거되얏다는데 김갑순씨에게대하야 공갈죄와명예훼손죄로 엄중한 취조를받는다고한다

내선평론사는 금년七월에창간하야 동지七월九일과 七월二十일부에 격문을실은것으로 그와가티 고소를 제기한것이라 한다

平安南道에서 虎疫豫防注射 ・接客業者等에實施 위선 四만인에 주사햇다

【평양】 평안남도 위생과에서는 호열자 예방주사를실시코저 우선四만인분을 가지다가 十一일부터 도내의一체접객업자(接客業者)에게 실시하려라한다

無許可銃器 四十餘件! 룡산서 관내에만

룡산서에서는 관내에무허가총기(銃器)를 조사한 결과 금번七十五건중에서 무허가 四十四건 라관내에서옴겨온후 아즉허가수속을 아니한것 三十一건을 새로발견하얏다한다

子婦의誣陷에 割腹한媤父 두사람의 생명은 구할듯 貧困이나흔大慘劇

【무순】 남만 무순만달옥신촌(南滿撫順萬達屋新村)에는 지난三일밤 새로한시경에 골육상쟁으로 선혈이 림리한중에 사람을 살려라고하야 단꿈을꾸던 동리사람을 놀래게한일이 잇섯다한다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 알어보니 본적을 평북철산군월한동(平北鐵山郡月閑洞)에두고 十여년전에 만주신빈현왕청문석인구(滿洲新賓縣旺淸門石人溝)동에 거주하며 농업하는 김응서(金應瑞)(?)는 五년전에커를일코 맛아들 덕관(德寬)(?)과며느리 노씨(盧氏)(?)와 차자덕승(德承)(?) 내외를 더리고 남부럽지안흔 생활을 하든중 작년사변이래 도적에게 가장집물을 빼앗기고 지난四월에 전과 주소에 피난하야 온집안이 로동으로 그날그날을 살어가든차 설상가상으로 손자와 망내아들까지 죽어실로는 눈물과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되엇는데 맛며느리노씨(盧氏)는 살림이 전보다 구차하야 집을 떠나 가청에 불평을 이르키든 二三차의 언쟁이 잇슨후 분가하기를 눌외하고 잇섯다고한다

그런가운데 차자의 사돈이 또한 피난을와 한집에 거주함으로 방싸지협착하야 十여일전부터시아비는 맛아들방에서 동숙하게되엇는데 지난三일밤 한시쯤하야 아들며메서 자든며느리가 어려나며 이편과상한번이 잇는가 시아비가 며느리에게달려드니 이런집에서 어떠케살겟다가느냐 한시바삐 세간을 나아가겟다고 자긔남편을졸르매 그남편은 하도어이가업는일이라 그런말을 입밧게내지말라고 말리고잇든바 시아비는 자식에게이런 보향을입고 어떠케살겟느냐 하면서 밧그로나가더니 낫을들고 드러와 며느리엇개를찍고 나도 죽는다고 머리와 목을찍엇스나 죽어지지안홈으로 다시 배를 그어 창자가 나오게되자 근처사람들이 호동하야 곳만철병원에입원케하얏다는데두사람이다생명에는념려가업다고한다

第四次共産黨事件 五氏今朝出獄 지금 한성려관에 묵는중 鐵窓呻吟四個星霜

제四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四년의 징역을밧고 이래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지룡수(池龍洙) 강해석(姜海錫) 조극환(曺克煥) 조완석(曺完錫)등四씨는 九일만기출옥하얏는데 지금 한성려관에 묵는중인데 금조립경려영(李英)씨도 가티잇다하며 동일동사건으로 경성형무소에서복역하든송종현(宋鍾鉉)씨도만기출옥되엇다

咸北一帶를區域으로 共産黨再建計劃 갱부、농민、학생층을총망라 百十八名의多數를檢擧 四十七名不遠送局

計劃擴張의 直前에發覺 ◇좌익분자 양성에 주력 首謀張은高飛遠走

【라남】 라남 경찰서(羅南署)에서 모중대사건으로 함북중요지며를 주심하야 혈안으로검거와람색에 몰두하고 잇다는것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 그사건의 취조는 완료되어 一주일내로청진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약四十七、八명을송국하려라는데 그자세한것은 아즉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히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다음과갓다

사건 발로의 단서는 지난五월중순경에 우원종동이 함북순회시 경성(鏡城)시내에 불온한 격문을 산포한것이 검거의시작으로 경성고보학생 二명을검거하야 엄중한취조를한결과 사건은 점차확대되어 농촌과 각종요란갱、공장에까지 전파된것이다

一二개월간 검거한 총인수는 一백十八명이되며 취조중에 석방한사람은 三十八명 가량이되고 남어지는 부녕、경성、라남등 각경찰서에 류치하야 엄중취조를 한결과 전과한바와가티 一주일내로四十七、八명은 송국하고남어지二十여명은 곳석방되리라고한다

검거의구역은 경성、주을、청진、웅기、회령、온성등지이며 사건은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사건이나 경찰의발표에 의하면 전번취조를완료한 대구의 협의회사건과는 성질의차가 잇는것이라고하며 이사건의수모자 장도명(張道明)(一一)외 수명은 이미해외로 도주한셈으로 온성이단체의 파적체계와 배후의련락은 정확하게알수업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협의회라는 단체도 완성된것이 아니고 六월초순에 협의회를 조직하야 운동을통일확장하고저한것이 미연에 발각된것이며 이번사건은 상부로부터 조직한것이아니라 미트로부터 통일전선을취하는동시 상향조직에 몰두하는一방 주로가장발달한 좌익분자 양성에주력하야스며 그지반이 학생층과경성 남석동(南夕洞)남부동(南部洞) 온성(穩城)一대의 농민층과 경령、회령一대의 탄갱、청진、웅기등지에 보통로동자가 어민층지반으로한것만큼 그엿향은 상당허잇스리라고한다

男便은自殺 靑孀으로被逐 백만장자의식부를걸어 九千圓慰藉料請求

개성부남본정(開城府南本町)五三八번지 현거복(玄?福)이

求刑은七年 判決은無罪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야 ◇媤父毒殺未遂犯

살인미수사건으로 七년징역의 구형을 바덧든 피고가 九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바더다

피고는 강원도 정선군북면고양리(江原道旌善郡北面高養里)二五四번지 진장운(秦相云)의 쳐 리풍엽(李楓葉)이라는 당년二十一세의 녀자인데 경찰로부터 취조송국한 내용을보건대피고는 일쯕부터 약간의비상을가지고잇든바 지난四월十九일 친부의제사를 지내고 도라왓든바 시부되는 진덕윤(秦德允)이가 …아버려서 필경 살인미수가되엇다는것이다

이에대하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도 전과와가티 괴소하야 림회햇든 좌등(佐藤)검사로부터 징역七년을구형 햇섯는데 담임 적(荻)재판장은 증거불충분하다고 필경 무죄를언도햇다고한다

無許可練習生 運轉을團束 交通事故續出

작八일 오후五시五十五분에 부내 황금정(黃金町)三정목 … 운송점의「도락」一천四백四十六호를 운전하고 탑골공원압길을 동으로 가다가 지나가든 부내인사동(仁寺洞)료리집천향원(天香園)고용인 김봉현(金?鉉)(?)을 치여 치료一주일간의중상을지엇다한다

가해자는 하볼자동차의 면허장(免許狀)을 가지지아니한 무면허의 견습생으로 경찰당국에서는 취조의 결과 엄중한 처벌을할터이라한다

이에 대하야 종로서사법계매천(梅川)주임은 말하되 「최근에 정규의 면허장을 가지지못한 견습생들이 대담하게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가 흔히 사고를 이르키는일이 만습니다 그책임은 직접당사자들보다도 그들을 사용하는 주인들의 허물이 더욱 큼으로 보안계로 하야금 자동차영업자들에 대하야 금후 그가튼일이 절대로 업도록 엄중경고를하도록 하얏습니다」

◇소매치기檢擧

지난七일 룡산서 순사리세근(李世根)은 룡산역구내를 순시하다가 철도국서괴일본인 모의 주머니에서 돈지갑을쓰내는 쓰리 현행범한명을 체포하엿다 즉시본서에 인치하고 취조한 결과 본적을 론산군상월면신충리(論山郡上月面新忠里)에 둔 주소부정 전과一범인 윤봉악(尹奉岳)(?)으로 원산 평양등지에서도 쓰리질을한것을 자백하엿슴으로 각지로피해자를 조사하기로 하엿다 한다

菓子原料와製菓器具 京城黃金町二 大塚製粉所

… 가서 도라오지안는 순복(金順福)을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 동거청구 소송을 제긔하얏다

소장의내용은 원고는 지난소화二년 피고와결혼하야 이래동거를하고잇든바 피고는 지난二월하순경 자긔친정인 권과장소에를 잠간다녀온다고하면서 나간이후 도모지도라오지를 안는다

원고는 저간누누히 피고에게 대하야 도라오라고 권고를하얏스나 一향불청하기때문에 본건소송을제긔한다고 하얏다

작년이래 녀자가 남자에대하야 동거청구소송과 동거강제집행이란 진긔한사건이잇서 세상의흥미를 자못이르키엇는데 이번에는 남자로서녀자에 대하야 동거를 청구하게되어 역시일반의흥미를 쓰은다고한다

無脊柱畸形兒 뼈업는애를나하

【평양】 부내 영정리(?町里)七九번지김인수(金仁壽)(假名)의처 리씨(李氏)(?)는 七일무척주래아(無脊柱胎兒)라는 기형아(畸形兒)를 분만하얏다한다

이는 보고드믄 기형아로서 척주와 륵골(肋骨)、골반(骨盤)、견갑골(肩胛骨)등이 업는바 무골중이라한다 목이업시 머리와 어깨가맛붓고 팔은 두게가 다 엉덩이밑에부터 발아 四개처럼 되엇고 눈、귀、입、코는 형상뿐은 잇섯다

여것은 八개월만에 류산케된것을희생의원(?生醫院)에서 인공으로 해산케한것이라한다

리씨는 이번이 네번재의 임신으로서 이번은 八개월만에 류산된 것인데 첫아이는 순산하얏스나 三시간만에 사망하고、둘재아이가 전과와가튼 기형아엿다고 한다 그러나 발육은상당하야 중량이 一관五백몬메나 되는데 의학계에서보기드믄기형아라한다

窃盜團送局

지난八일 오후十시경 시내 원정(元町)파출소강기(岡崎)순사가관내에대도정(大島町)을 순회조을하다가 거동어수상한자 二명을 검거하고파출소에 데리고와서 조사한결과 의외에 쓰리절도사기의 죄상을 자백하얏슴으로 그동안 여러방면으로 피해사건을 조사하야지난八일검사국으로 넘기엇다

자세한사실을 보면본적을충남홍순 홍순면 고암리(洪順面古岩里)三백九十二번지 우시물(禹時?)(?)과 연백군은산면서남리(延白郡金山面西南里)림철순(?)두명은 서로공모하고 지난七월二十일경부터 경성을비롯하야 함경도등지로 다니며 스리절도의범행을 전후六건이나하고 얼마전에 전과범순은 단독으로 고양군한지면 신당리(高陽郡漢芝面新堂里)一백九번지 강재권(姜在?)방에가서 엿장사를하겟다고 엿목판과 엿을가지고나와 엿가의와엿은 모다파러소비하고 엿목판은 길가에내여버린것등이라한다

倭館軍이優勝

【청주】 본보청주지국(本報淸州支局)주최인 남청주(?)대회는 예정한대로 지난七일에 동군공보교코ー트에서 관주외학수리여서 一반선수의 용감한묘기를 썩내게되바 동일오후七시十五분에 五개단체는 떨어지고 왜관ー광정구단과 청주학우회B팀의 접전으로 결국왜관군이우승하고 동七시四十분에 우승기 수여식이잇섯다

第七面記事는 今日第六面에

懸賞稱方七百通中特選 當選淋藥 慢性用 四圓 急性用 二圓半 試用無料 十五錢郵券要 京城 水下町 平和堂

謹告 … 受取人 鄭奎[illegible]

돈버는大王 恩給 朴商會

漁具 秋岡商會

빅타ー레코ー드 特別新譜
스켓취 動物園(上下)
抒情 迎客
小曲 고요한長安
流行 處女行進曲
漫曲 왕크바람
新民謠 에라좃쿠나
에헤루야
朝鮮賣捌元 株式會社 セ… 京城竹添町一丁目七十五番地

朝鮮總督府竝外務省 巡査募集 講義錄發行 京城府永樂町 朝鮮警務學會

淋病藥新發賣 ピチリント 百圓進呈 專賣店

地方論壇

窮民을救濟하라
一般人士와當局者에게告함
群山 一記者

經濟界의 不景氣는 나날이 甚하야가다 中小商工業는 나날이 窮乏해가며 自作人들은 바이로 窮民으로化한다 그동안의調査에依하면 群山에만이今年一月以降 四月까지만도要救急戶數二千百十六戶、人口九千八百八十三人、流離戶數一百八十戶、人口八百四人이며 …

撒水機를改善하라
順天 一記者

全南順天邑은 一萬八千人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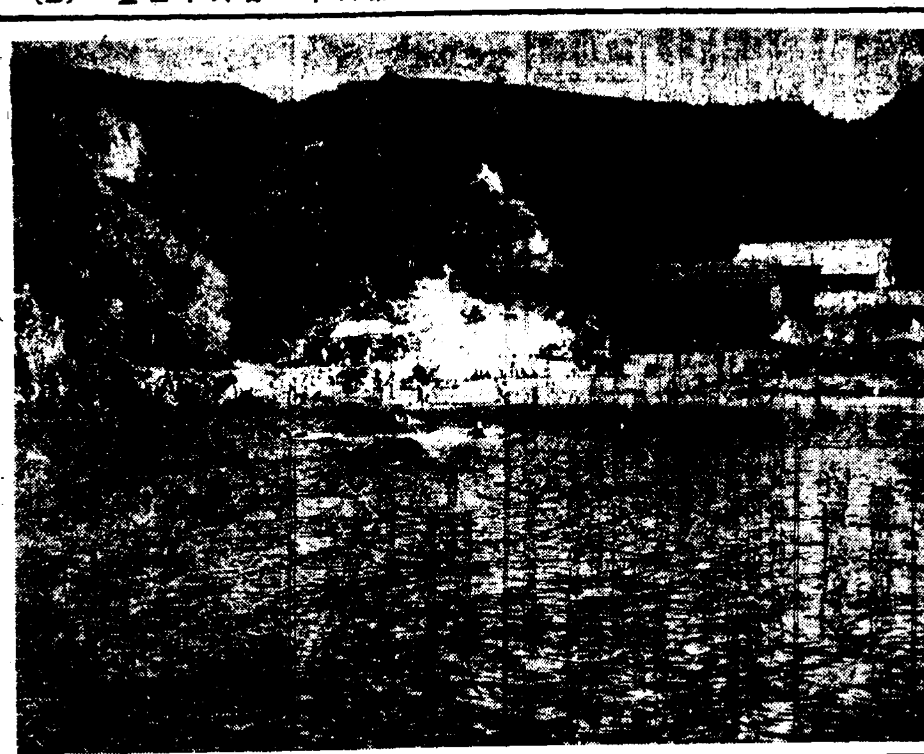
九百餘人組合員에게 家産差押競賣手續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이때에
德隅金組債金督促

【황주】 황주군귀낙면 덕우금융조합(黃州郡龜洛面德隅金融組合)에서는 동조합에가입한 조합원총수九백九十여명중 七백여명조합원에게대하야 채무반환을 독촉하는 …

穀坂法講習
【갑산】 함남갑산군산림조합(甲山郡森林組合)에서는 …

大渚學術講習所
大成學校로昇格
보교와가티 경영하든것
認可申請書를提出

【대저】 경남김해군 대저 화원인 대청十년에 창립되엇는데 …



◇…江陵安木島水浴場

支拂過期라고 戶稅受納拒絕
독촉장 발부 키든 오라고
利原郡廳의怪處事

【차호】 함남리원군남면(利原郡南面)일대에는 금년도제一긔되엇는데 지불기일에 며칠이지 아니하야 독촉장을 발부하기전임 …

高青會館問題
원만하게해결
【고령】 경북고령청년동맹(高靈青年同盟)에서는 …

運動競技

南朝鮮庭球
선산에서개최
【선산】 재경 선산 류학생회(在京善山留學生會)에서는 보사선산지국후원으로 다음 시일장소에서 제四회 남조선단체정구대회(第四回南朝鮮團體庭球大會)를 개최한다는데 각지에 산재한 선수들은 무루참가하기를바란다한다
時日 八月二十一日
場所 善山公普校코-트
參加金 二圓(三組一團)
賞品 優勝旗及副賞

伊川個人庭球
【이천】 이천학우회(伊川學友會)주최로 지난七일 오후一시부터 이천청년단(伊川青年團)코-트에서 개인정구대회(個人庭球大會)를개최하얏는데 …

野球道具寄附
【견이포】 …

百中節의씨름
槐山
【괴산】 조선중앙일보괴산지국(朝鮮中央日報槐山支局)주최로 …

長湖院
【장호원】 …

沃川
【옥천】 충북 옥천 …

漣溪
【은경원】 …

姑婦間不和로 己出子慘殺
난지 녀달째나는 아이를
二十歲少婦의素行

【평구】 시어미와 불화하야집 …

東萊郡廳에 公金橫領頻頻
작년세외게 김모란이가
또二千三百圓차저逃亡

【동래】 동래군청(東萊郡廳)재무계(財務係)에 …

尹金兩名釋放
【하동】 …

江景衡平社員 三人은體刑에
【강경】 …

自動車에 좃겨 殺兒
지난七일 울산군 교동서
腸胃破裂로卽時絕命

【울산】 지난七일오전十시二十분경 …

申周極送局
二青年은留置
【울산】 …

留學生音樂會
【재령】 …

留學生懇談會禁止
【김천】 …

運河工事中 四名이死傷
二명즉사코二명중경상
原因은흙덩이崩壞

【사리원】 황해도사리원 운하(沙里院運河)공사장에서는 지난八일 오전六시三十분경에 …

長淵에火災 四戶를全燒
【장연】 지난八일 새벽에 …

南海市日變更
【남해】 …

馬山한言不許
그대로허티저
【마산】 …

모긔장불로 老婆가燒死
【평양】 …

二八處女自殺
아비수중으로
【진남포】 …

奸巧한郵所員
【김제】 …

集會
◎ …

消息
◎ …

地方雜信
◇ …

第二回 忠清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四日午前九時
◇場所 忠州體育協會指定코-트
◇申請 八月十三日까지
◇參加金 一組一圓(晝食提供)
◇主催 東亞日報社 忠州支局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三日
◇場所 長水公立普通學校코-트
◇主催 東亞日報長水支局
◇後援 長水青年會

第七回六郡聯合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四日午前八時
◇場所 …山公普校코-트
◇主催 …山公普校同窓會
◇後援 東亞日報…山分局

第一回關西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四日午前十時(雨天順延)
◇場所 路下庭球俱樂部코-트
◇主催 路下庭球俱樂部
◇後援 大阪每日新聞路下取次所 東亞日報路下分局

白花
朴花城女史作 李青田畫 【63】

글귀를채운이는 누구? (二)

謹告
任總務 秋南周
任記者 李元發 金龍福 成斗永
任記者 趙祥李
昭和七年八月六日 東亞日報社 南旨支局
任集金員 徐寶鍊
昭和七年八月六日 東亞日報社 統營支局
任駐在記者 李炳斗 崔東玉
任注文津駐在記者 韓先澈
昭和七年七月卅一日 東亞日報社 江陵支局
任記者 金永璋
昭和七年七月卅一日 東亞日報社 谷山支局
任記者 齊萬映 張德鈞
任顧問
昭和七年三十一日 東亞日報社 金泉支局
任記者 金昌麟
昭和七年七月三十日 東亞日報社 …島支局

ClibPDF - www.fastio.com

二千啓蒙隊活動開始
三千里村村에 글소리琅琅

◇第二回學生◇ 브나로드運動 各地隊員消息 【其十二】

順川郡 時時로授賞 生徒向學熱도 助長

나는 七월二十일에 하긔방학을하고 동지四人외에 일보학생중 최(崔)군을 기다려가지고 七월二十二일부터 본적지인순천군사인면사창리(順川郡舍人面社倉里) 二十호미만인 리동(村洞)이라하난 적근촌락에서 十六세미만인남녀합하야十六명을 모집하야 나의집뒤실에서한글부터 강습하기시작하엿다 생도반수이상이농촌부산아동인고로 낫에는 부모님을 따러들에나아가 김도매도 거덕벼가되면 소멸도비교소도 맥여주간에는 출석치못함으로 그들을위하야二반으로 난우어 진행한다 시시로대원六인이 상의하고 생도들의 열심을주기위하야 약간한금전을 모아가지고 시시로상품을수여한다 한글이 끗난후에 계속하야 산술을시작할작정이다

崔熙俊 崔熙彬 崔存彬 崔熙楨 崔如岡 崔熙敬

咸州郡 婦女等自願 別班組織講習始作

귀사에서 보내준「한글공부」와「계수법」백四十책은 七월二十七일에바더 그날낫부터강습생을모집하야 三十一일까지에 예상외六十여명을돌파하엿다 그이일인 八월一일부터 三명의강사로三반에나누어 오후九시부터 十시반까지한마루교씩수하고 헤여진다 강습소는 본래 선일학원(鮮一學院)의강당이든데무실(事務室)을빌어四十명을수용하고남어지 二十명은 동내박태균(朴台均)군의집에수용하얏다 강습파목은 귀사의정한에달하「한글」과「계수법」을가르치는외에 일요일에는 강화시간을두어그들의 흥미와유쾌함을 도두어주기로하얏다 강습을시작한지이틀되는 二일에는 二十세를넘은 五、六명의 부인들이 차저와서강습에참가하기를 원함으로 따로부인반을설치하고三일밤부터 가르치게 되엿는데 그들이 농가의가정생활의틈틈타 부업를위하면서도 우습지운나츠로 결석함이업시 오후九시반까지는 모다출석하여「가갸거겨」를 배워나가니 조선의팔할을점한 농촌의어머니인 그들의아페는 반드시복스럽고깃븐의 밝은날이 올것이다 그러고 강습료는 매명七전씩 부담하여서유와백묵갑을 충당하기로 한엿다 다음에상세하고 간단한내용을 적음

一、講習地 咸州郡州西面鶴湖里鮮一學院講堂
二、期限 八月一日부터八月二十一日까지
三、人數 男子二十一名 女子三十九名 婦人六名
四、講師 第一班 男子部 韓奉淳 第二班 女子部 鄭弘爍 第三班 女子部 朱奉楨 第四班 婦人部 韓奉五
(責任隊員 韓奉五)

江西郡 募兒에專力 十五里許서巡講中

강서군쌍룡면귀리(江西郡雙龍面貴里)보나로드운동은 동군사천시에잇는 우애단(友愛團)의 후원으로어며 예수교회당에서 七월二十五일부터 개강하얏는데 교당국의소청에의하야 명칭을경학교로하얏다

우리들은 별동대원은 전부가강습지로부터十五리여를격한곳에서 출동하야 강습지를중심으로 二、三十리를답파하야가면서 매일가티 아동모집에진력을다하나 응모자수는 소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어대까지든지 난관을돌파하야가면서 초지를관철코저한다

現在兒童 男二〇名 女一九名 合三十九名
講師 方週春(別動) 邦德日(崇實) 金昌德(別動) 李昌楠、李守敎(崇仁) 金俊五、金昌德、吳鎭瑞、邦德日 (責任隊員 金昌德)

永同郡 許可치안허 學用品夜學에寄附

재경영동류학생이 합력하야 모든비용을 부담하고 五대로난우워 대대적으로 보나로드운동을할 큰희망을 가지고귀향하얏다 우리들은 七월十八일부터 귀사영동지국후원하에서 학생모집과 당국의허가에 운동을개시하엿다 당국에서는 도의허가가 잇서야된다하기에 허가신청서를 당국을통하야 제출하고 二十五일부터 개강하기로 하엿더니 겨우 二十五일에야 강사전부를 호출하고 고등게에서 서약서에 날인케하고허가하엿다가 불과수시간후에 도에서 허가가 나오도록까지 중지하라는 통지가잇스니 기달리라하엿다 이얼마나 기백부소식이 업스니 군에서 이것는지 이리저리미루어서만 제출하면 곳허가한다더니 금일까지 아첫일인가 또수일후에는 군으로부터 강사의 리을썸이지 모르겟다 우리는 단념하고 준비하얏든 모든학용품(鉛筆公冊日用帳)은 군내아학에다 긔부할작정이다 이러고보니 피땀을흘리며 밤낫를는 눈먼로동자의 말로가 더욱더욱 눈물겨워 보인다 쓰든로 귀사에 미안하옵니만 이오이후로는 당국이 우리의하는일을 좀더리해하고 좀더협력하야주기를 바란다

염열파 싸우는 전조선각지에허더진 동지들에게감사를표하며 눈물을흘리고 이소식을전한다(責任隊員朴海用 洪淳國 崔鍾奎)

龍川郡 元氣가旺盛 講習生은男女卅名

보나로드운동은 七월三十一일부터 시작하엿는데 장소는 룡천군북중면원봉동(龍川郡北中面元峯洞)사숙이오 아동수효는 남자十五명 녀자十五명 합三十명인데 모다씩씩한긔운으로재미잇게해나가고잇다

高陽郡 許可가遲延 開講與否도尙未詳

예정일인 七월二十五일을 압두고모부와게회을 세위(공상에서 실제에 배옹을 채우시못하고잇는 돈업는 집을반문하야 권유한결과나도나도하며쾌히 승락들을하얏다 그래서제一차로목적을말한우리는 다시제二차로 장소를二처학원과一처창고를 쓰기로하엿다 이러케만반준비를다하고 그다음은주재소의 량해를구하엿스나본서로밀봉으로 본서로또가서 교섭하엿더니군청으로또밀운다 군에서는이허가원을 정식으로제출하여야 허가여부를알수잇다한다

그래서 부득이허가원을 제출은하엿스나 언제나 허가가날는지 우리외에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중지상태에잇다 (高陽郡崇仁面龍頭里別動隊責任隊員金熙昌)

靈光郡 署長과交涉 내일에는군청으로

경찰서의 허가를맛고저 서장을방문하고 허가엇기를청한즉서장이 말하되 계몽운동가튼것은 서당파가트니 지사의인가를마터야된다고하며 군청학무게의 승락을맛고오면 우리가직접으로도청에보내여서 인가를마터주겟다고하며 긔일은三주일가량 걸린다고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三주일이걸리면 八월하순게나되니 할수업는일이엿다 경찰서를 나오니 벌서 오정이너머서 군청은 명일로미루고도라왓다(責任隊員金喆壯)

新義州 生徒數日增 現在男女四十一名

그간긔후불순으로 인하야 八월一일에시작하얏는데 남자十四인 녀자二十七인 합 四十一인 장소 義州郡古津面士樹禮拜堂內 생도수가날로증가하여 자미가만습니다

黃州郡 三班에난워 講師가不足할地境

지난달 二十四일부터 황주읍내희망관(希望館)에서 오전반으로 강습을개시하엿다(黃州)귀읍은 반개월로 예정은하엿스나생도들의깨닷는정도에의하야 좀더 연긔하려한다금후로는일긔관게로학생들의 편리를 도음기위하야 오후반으로개시하려한다강사는五명 응모학생은二백五十명중 녀자는 백명 강사씨명은 다음과갓다

唱歌 平女高普金成福 遊戱 沙高女 金吉女 童話 光成高普金振玉 體操 培材高普金光洙 한글計算 培材高普金順平

경비는 지국장 김성려(金成麗)씨가전부자담하야주셧다 장소는 황주중앙인 희망관이 그중 적당함으로희망사주사리동희(李東熙)씨에게교섭 하엿던바 씨는 대찬성을하며 허락하엿다 그리하여 초등、중등、고등三반으로 분리할예정이다 응모자가 날로증가함으로 강사가부족하기때문에 황주유학생한우회에 교섭하야강사十명을더엇게하얏다 (사진은개강할때에생도와강사) (責任隊員 金順平)

羅州郡 二週日만에 不許可通知書到着

八월一일부터 약三주간보나로드 강습을시작할예정이엇스나 도당국의인가를 엇지안코는될수업스니 인가원을 제출하라는 경찰의말이잇슴으로 강사될멤동무의 리력서가와 지국장의리력서를첨부하야 요구대로 제출하얏스나고며하고고대하든 반갑지안흔 통지서二주일만에야나왓다—『私設講習會の件許可難し』라고…… 다만우숩수도업고 울수도업는 이가튼현상에아연할따름이다(羅州責任隊員金曉燮)

古邑驛 女子가多數 男女生百四十五名

귀사에서 발송한한글과 산술책을가지고 二일에개학하엿다
平北定州郡葛山面五山洞五山普校內
職員 校長一 書記一 會計一 男先生五 女先生九人
教科 한글 算術 聖經 暗誦 聖經史 唱歌 體操 手工 地誌
生徒 男六一 女八四人 六時日八月二十日(責任隊員金炳奎)

黃州브나로드에參加生徒

漢詩

移秧 茂亭鄭萬朝 考選

選外佳作

水州 河龍起

老農敲鈴古年豐、翻犁前郊日正中。打麥家家先貯穀、登壟處處且成功。仁天忽送知時雨、諸俗應如太古風。饁婦爭呼田畯喜、西疇南畝也相同。

通川 周殷五

適時雨足靜無風、秧事奔忙西復東。人似整齊陣面、苗如棋子點枰中。行間淸淺波紋合、植付縱橫手法工。活水盈盈秧稻碧、先徵秋後百囷豐。

清德校財産이 府所有에編入
산八十六정보가 편입돼 學校側에서返還要求

【청진】함북청진부포항동(淸津浦項洞)청덕학교(淸德學校)에서는 동교의 소유재산이든 포항동 산(山)二十번지八十六정보여가 청진부유 재산에 편입되엇다하야 청진부회 밋드당국에 항의문을 제출하고다시 대표를 파견하야 직접그의반환을요구하는 동시에 포항동一一八번지산 四정보여의 공동묘지도 금번묘지이전됨과함께 그의반환을 요구중이라한다 동교소유지라는 산 二十번지는원래 포항동 동게에서 대정九년도에 대부허가를바든 동게재산으로 대정十二년 九월十九일동게총회에서 현금 四천원과 함께 청진청덕학교의 전신이든 청부학원(淸富學院)에양도한것으로 이래十여년간 동교에서는 매년부당국에서 다수의 묘목을 구입하야 식수금양(植樹及禁養)을하여온것이라한다 부당국이 부유재산으로 주장하는리유는 전긔림야가 대정十二년九월十五일부로차지권(借地權)을양수하얏다는 것이라하나 양수에대한 증서는 부청급 도청의 화재당시에 소각된것이라고주장한다고한다

對策講究코저 緊急臨時總會 浦項洞教育會에서

당국의 처치에 절대 반대하고 그회수책을 강구하는 청덕학교는 一九二二년에 년령초과로 보교에입학못한 학령아동교육하는긔관으로서 보습학회관이란 이름으로 창립되여 당시부내산압동동게사무실을교실로사용하다가 一九二五년에 포항동구공보교사(舊公普校舍)로옴기엿고 그익년에 포항동교육회에서 인수경영타가 재작년에와서 경영난으로 김기덕(金基德)씨가 교주로서인수한후 청덕학교로되엇는데 창립이래 十여년간다수한졸업생을 내엿스며 현재약三백여명의생도를 수용한 사실교육긔관으로 금년이막대한 소유재산을뷧게되면 그영향이중대하다하야 학교당국은물론 一반인사들까지 그대책강구에부심한다하며 전경영단체이든 포항동교육회에서는 八월八일 동교강당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대책을협의하리라한다

傳說(40) 泗沘河畔釣龍臺
◇룡이 망한나라를 구원하러다◇ 蘇定方의白馬에낙겨

大田 金容瓚(寄)

때는 정히 一천二백 七十년전 七월十五일이다 백제국도성부여(古潮城郡城扶餘)에는 별안간에 천지가 회명하고 뢰성이 대작하야 그도성 뒤에잇는 사자하(泗沘河)로 괴세당당하게 거슬려올라오는 병선수백척을 한쉬번에 들어엄퍼서 수천명의 군사가 일시에뭍에 내려왓엇다 그도성안에 잇는 당나라군사十三만명 신라의군사오만명은 방어에다가수서락을 여러드리고 법석떨고잇다 이번괴가 만일二、三일전에 생기엿드라면 백제도성을에워싸고 맹렬히공성전(攻城戰)을개시하든 당라련합군(唐羅聯合軍)은 제아모리 우세일지라도 예긔(銳氣)가 꺾기여저서 마치청초파결초(靑草坡結草)로말미암아 크게패하야도망하든 두회(杜回)의군사처럼 서청란금(西城蘭琴)을 의심하야뒤로물러가든사마의(司馬懿)의 군사처럼 황황급급히 그대로 철귀(撤歸)하엿을는지도모를것이다 백제의도성이이미적군에게 점령된뒤에 이번괴가발생한것은 백제를위하야는 실로유감이다

백제군은 七월十二일에 힘을다하야 성을지키여 만여명의 전사자(戰死者)를내이고그만세궁력진하엿다 적군은그를을타서 조수와가티 성을넘어들어와 백제외과(族)를 모다쇄아버리고 당나라와신라의긔를세웟다 의자왕(義慈王)은황망히 웅진으로도망하고 궁녀三백명은 락화암에서 몸을던저 안타갑게죽어버리고 모든왕족은목에흰수건을걸고 무릅을굴코항복하엿다 三十一대의왕업은 이날에사라젓다 궁궐,사찰,갑제의호화한건물은 적병들이차지하야 여러달수륙에서고생하든다리를 편안히쉬게되고 궁성의남쪽대왕포(大王浦)하류에매여잇든 수천척의병선도 닷줄을감어 소항(溯航)하야 규암진(窺岩津)을지나 취머리가 락화암아래에 당도할지음에 난데업는대풍이 이러나서 물결은 용소심하고 우뢰소리가 진동하야 천긔수백척의병선을 드러 업퍼버리엇다 이 락화암 압에의 강물은 비상히 푸르고 기픈곳이며 그전날에 궁녀 三백명이 일시에 몸을던저 죽은곳이라 그들의 원혼(怨魂)이 원한을이기지못하야 이러한 괴변을이르킨것이 아닌가하야 적군의맘을 현란케 하얏다 대장소정방(蘇定方)은 부하장교를모하이 괴변이 어떠한 원인으로 생긴것인가 그에대한 의견을 무러보앗다 부하들은 대답할 재료가 업서 묵묵히안젓다 그중에 문인으로 종군하얏든 한사람이잇서 무엇을 한참동안 생각하다가 출반하야 가로대 그괴변의 발생지는 강물이 맑고도 기프니 독한룡이 잠기어잇다가 줄지에 병선수백척이 요란하게 올라오는것을 보고 그와가튼 작란을 하얏슬 것이라하얏다 소정방은 그말이 유리하다하야 그룡을 무슨 방법으로 퇴치하겟는가하고 무러보앗다 그문사는 가로대 룡은백마를기호(嗜好)하는것인즉 백마를 미씨로하야 잡아내는것이 조타하얏다

소정방은 즉시 굴근쇠로 락시를휘고 동아줄가든칠사로낙시줄을 맨들고 백마로 미씨를하야 강가바위에 안저 낙시줄을 길게푸려주엇섯다 얼마아니되어 과연낙시人줄이 핑핑하게 켕기면서 강물이 용소숨친다 소정방은 두발로 바위를잔득버티고 힘것 쇠人줄을 잡아당가엇다 쇠人줄은 조금이편으로 쓸려오다가 돌우 커편으로 쓸려간다 이모양으로 여러시간을 힘란하얏다 아모리 농혀 커지기도하고 적어지기도하고 하늘에 올르기도 하고 물에 잠기기도하고 구름을 이르키고 비를내리는 신통한 힘을가진 룡이라 할지라도 일인에 큰쇠갈쿠리가 들어잇는상에야 신력을 행할자유를 일허버릴것이다 그는 어찌[illegible]날에 크게놀래어 병선을 들어업펏다는것보다 그의 근거지가 적군에게 점령됨을 보고 크게로하야 신력을 부렷다는것이 적당치 안흘가? 그의 근거지가 만일 대왕포하류에 잇서서 거긔에서 신력을 행사하얏다하면 백제군은 승승장구하야 당라련합군의 긔세를 썩거버리는동시에 룡도무사하고 백제도 망국이 되지 아니하얏슬것이다

그릇백마의미씨를삼키고 소정방의손에잡히게된 이룡은비록 세력은일코 뜻을이루지못하엿스나 [illegible]시인의 회고재료가되어 화락룡망고국수(花落龍亡故國愁)를부르게 되엇다 이로부터 사자하(泗沘河)는백마강이되고 바위는조룡대가되엇다 이조룡대는 고란사(皐蘭寺)전면에잇는데 쇠줄에닭은자국과 두발로버티든자리가완연히남어잇다 宋龜峯詩曰

投馬有痕雲寂寂 落花無跡水悠悠

한글巡禮 永興에서 李允宰

中伏을 지낸지도 겨우사흘째되는 덥다면 제일더운 때로 쩌는 듯한 무더위가 정히사람을 熱殺惱殺하려드는 七月三十一日밤이엇습니다。車中에는 元山의浴場과 三防의藥水로 涼味를찾아가는 멀숙한 乘客들로 가득 차서거의 容膝할수없었습니다。오늘날 우리네들의 生活難으로 잔뜩 부대끼어 혹은間島로 혹은 日本으로 삶길을 찾아 헤매는 판이며 더욱이 요새같이 南北滿에 죽느니 사느니 마음하는 이 소리가 하늘에 사모치듯한 이 시절이 언마는 오히려 一方으로 行樂하는 風流客들이 이처럼 많음은 진실로 생각밧이라 과연 社會의 現象이 이와같이 正反比例인가 하고 혼자스스로 한탄을 발하면서 한쪽 어느틈을 부비어고 앉아 그냥 꿈으러지엇습니다 烈은 弓裔의 遺蹟이며 三防의 幽峽도 다 꿈속에 묻허어버리고 말앗습니다

八月一日 아침에 永興驛에 나리엇습니다。맞아나온 本社支局 顧問 李命燮氏와 金蓀鉉氏를 따라 自動車로 京城旅館에 들엇습니다。支局長 劉永福氏는 時局關係의 어떤 事件으로 不幸히 檢束되어 잇기때문에 맞나보지못하게 됨을 못내 섭섭하엿습니다。朝飯後에 市街로 나갓습니다 이날은 마침 市日로 市場에 장꾼이 그리 많지 아니함은 요새가 農繁期인까닭이며 物貨는 依然히 山積하여 잇습니다。永興이 明紬의 産地로 유명하다함은 익히아는바이지마는 과연 와서 보니 邑內 一千三百餘戶에 거의 집집마다 뵈틀 없는데가 없으며 年産額이 七萬疋에 達한다하니 機業의 盛行이 여기를 뒤을 대가 없으리라고 합니다。따라서 人民의 生活程度도 대체로 裕足한 셈입니다。

×

永興은 李太祖의 龍興地임을 알지마는 산의 秀麗함과 들의 肥沃함을 보드라도 半島에 君臨하야 榮業垂統이 五百年에 이르게할 大人物이 날만도 하다고 생각하엿으나 여기에 모자람이 없음을 알앗습니다。邑에서 東으로 한 二十里박인 黑石里는 예적 桓祖(太祖의 父)의 私邸가 잇엇든 곳으로 [illegible]乙亥(西紀一三三五年)十月十一日에 太祖가 여기에서 誕降하셧다 합니다。朴郡守의 紹介로 太祖의 晬容을 奉安한 濬源殿과 『太祖高皇帝誕降舊基』비閣이 잇는 곳을 拜觀하엿습니다。太祖의 御極이 壬申七月 十六日인데 오늘이 역시 壬申七月 一日(陰曆)인즉 追慕의 情이 不啻에 견줄바 아니엇습니다。이 閣內에 쏘大한 老松은 近日에 죄다 採伐을 당하고 겨우 稚松만 드믄드믄 서잇어 自然의 景色을 좀인 것이 한가지 遺憾입니다。

×

豫定한대로 한글講習會는 一日 下午 四時부터 公立普通學校 敎室에서 열리엇습니다。金蓀鉉氏의 開會辭로 시작하엿습니다。講習員은 男女 七十餘名으로 官吏、敎員、醫師、銀行員等이 多數이며 百餘里밖에서 온이도 잇엇습니다。모두 專門智識以上의 程度이므로 講義하기에 크게 便利를 얻엇습니다。當地有志 白南樞 金蓀鉉 李命燮 諸氏의 盡力 斡旋으로 이와같이 意外의 大盛況을 이루엇습니다。永興은 한글 講習이 이번이 처음인것만큼 특별히 여기에 興味를 가진이가 많은 모양입니다。본래는 每日 四時間식만 하기로 하엿든바 첫날의 講義를 마치자 講習員으로부터 日字延長의 問題가 일어나서 매우 난처하게 되엇습니다 여러가지로의 논한끝에 不得已밤時間을利用하기로 하야 臨時電燈을 架設하고 夜間에 다시二時間식 더하기로 하야 겨우그 問題를 막아버렷습니다 나는 病後衰弱으로 어려울을 생각하엿으나 여러분들의 熱心誠意에 너무나 感服되어 조금도 疲勞를 느끼지 아니하엿습니다 오늘까지 여기에서 마치고 래일은 興南으로 가려 합니다。

八月三日 永興에서

第一回西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三、四兩日間(雨天順延)
◇場所 永柔明倫學校그라운드
◇主催 平原體育會
◇後援 永柔市民、東亞日報永柔分局

智異山探勝隊募集
◇時日 八月二十二日부터往復四日間
◇申請 八月二十一日正午까지
◇主催 東亞日報晋州支局
◇會費 每人當五圓(車費及食費)

關西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五、六兩日間(雨天順延)
◇場所 寧邊崇德學校蹴球場
◇主催 在外寧邊留學生會
◇後援 鐵山俱樂部、東亞日報社寧邊支局

第十回南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四日午前八時(雨天順延)
◇場所 浦項鹽田
◇主催 迎日留學生會
◇後援 東亞日報社浦項支局、浦項體育協會、甲子樂友會、浦項[illegible]

第九回平原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六日午前十時
◇場所 肅川公普校코-트
◇主催 平原學友會
◇後援 東亞日報肅川分局

腹痛과 下痢症에 糖衣아도-스錠
偉效絶大— 疫痢、赤痢、虎列刺、腸窒扶斯、吐瀉症、胃酸過多症、結核性下痢、急慢性下痢等에特効함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東京·大連·上海 京城支店 西小門町
各地有名藥店販賣
ADOS

協同新舞臺 第十二週公演 八月九日부터
料金 上階 大人四十錢 小人卅錢 下階 大人卅錢 小人十錢
◇李青海作 家庭劇 스윗홈 全一幕
◇李青海作 民謠劇 陽山道 全一幕
◇李青海作 大喜劇 술주정 全一幕
幕間餘興 獨唱과寸劇
常設 高等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期待의超雄篇 本日부터 大公開 (晝夜興行)
◇유나이뎃트아지스會社超特作 發聲映畫
原作 하-바-드스돗드 하임드氏
當代新婚爭奪戰 9
◇原作 무엘드·폰-氏 二重結婚 8
優美館 【電話本局二九五番】

ClibPDF - www.fastio.com

서양요리 [1]

東京 金海羅

케익 [1]

一、분량은 정확히 해야합니다

一、파자맨들때 가루는 반듯이 처로(篩)처서 분량을 되어야합니다

一、조흔재료를선택해야합니다

一、사라도 가른 찬음식은 차게 더운음식은 그릇까지라도 따뜻하게 해서식탁에 내어야합니다

一、인분을 따로 식탁에벌써도잇고 식탁에서 一인분식난울때도 잇는데 보기조흔쾌감을주도록맘천이담아야합니다

一、파자를 맨드는데 푸ー하게 이러나게 하는것은 베잉파오다와 조곰씩은우유와 쏘다(重炭酸나토리옴)와 게란흰자위를 거품을일게해서 맨듭니다 그러나 게란흰자위만하면 돈이만히드니까 대개는 베잉파오다를 사용합니다 과자에따라 분량대로 세가지를다너흘때도 잇고 한가지씩너허서맨들때도 잇습니다

一、오ー븐(화덕)은 파자 굽기전에 뜨겁게해야합니다 온도의 정도는조히우에 가루를노하 오ー븐 안에너허 五분동안에 노르스롬하게되면 알맛습니다 파자를 오ー븐 안에너흔뒤에 오래 뚝껑을 열어노코 더운김이 다나가게하면 안됩니다 엇든 업븐너코서내고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래층에 너헛다가 다음에는웃층에너허 굽니다 아래층은아래가 구어집니다 맨가운데층에 너허서 구오면 우이아래가 똑가티 잘구어집니다 대개시간은 파자에 따라 다르나 조고마한 파자는 二十五분으로 큰파자는四十분一시간걸리나 파자에따하 시간은 다릅니다

一、파자를구어가지고 잘되엇는가 잘못되엇는가 거르로만 보아도압니다 분량을 잘못되어서 가름이 넘우만흘때는부서지기를 잘하고 사탕이만흘때는 쓴적쓴적하고 보기조케 푸ー하지안코 가루가만흘때는 우이가터지고 가루가적을때는 푸ー하게 일어낫든것이 푹써저버립니다

一、케을 맨드는데는 어떤재료를 사용하든지 분량대로 정확한 분량에 젓기만잘하면 고만입니다

一、케을 맨들때 무엇이 제일어려우냐고 무르면 젓는것이라고하겟습니다 넘우 저으면 쩐적쩐적하게되어 푸ー하게 일어나지안코 또 게란흰자위를 거품내서 맨들때에는 더욱젓는데 주의해야합니다 넘우저으면 거품이 써저버려서 책이아니됩니다 또 잘못저으면 가루덩어리가 펑얼펑얼 뭉처서도모지 잘풀려지지 안케됩니다 오래ー젓지말고 할수잇는대로 삽분삽분가벼웁게 잠간저어야 합니다 파자에 딸한 괄쓰트로 첫실때도 잇습니다

一、분량을 되는데 대하야 테볼스픈 三이 한테볼스픈 차스픈 十六이 한컵 六十四방울이 한테볼스픈 원파인트가 두컵 원코올트가 四컵

一、한컵은 약여덜작(勺)에 적당하며 분량을 될때 칼로 착 쓸어서 정확히하여야합니다。

가정상식

▲바다와눈병

병독업는것을 명백히 알어야만합니다

해수욕과 수영은 눈을자극하야 충혈이되기쉬움으로 조꼼이라도 눈에이상이잇는 사람에게는 물론 해롭습니다

더욱이 도라홈과 결막염가튼 전염병상이 악화할수밧게 업습니다

다른병보다도 달라 눈병은도라홈이나 결막염이라도 그초기에잇서서는 병자에게 그다지고통을모르게 되는것임으로 해수욕장가튼데가서 읨층 병세가더 치어버립니다

또 해안에서는 일광의 반사가 강렬하기때문에 눈이좀약한사람은 자외선을 막는안경을쓰는것이 조흡니다

여름의 위장병은 충치로부터

거짓말가트나 정말입니다

여름은 소화기가 약하기쉽다는것은 누구나 말하는바입니다 이런때 특히 젓먹이 아이에게 맘직이 조심해서 젓을 먹여야 합니다 갓난아이 사망률이 조선이가장만흔것은사리가인정하는바입니다 그원인으로말하면 대부분이 소화불량 입니다 병우 한때에 파히 먹이는것이 제일위험합니다 우유말고어머니젓이라도 파히먹으면 재업시 소화불량증이 일게됩니다 우유그외 대용품은 더욱말할것도 업습니다

이런것은 특히 라는법에주의하는동시에 외사의 지도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이는 시간도 다른 때보다도 더 규측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침 여섯시부터 밤 열시까지 사이에 五회약지 六회 一회에 내 十五분 동안에

음 걸려 젓을 먹이는것이 조타고 합니다 이역 외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가지 조심스러운것은 여름부터 가을로 넘어설 동안에는 각과중이 일떼임으로 더욱 주의할 점이 잇습니다 만일 어머니에게 각기 기미가 잇스면 단연히 젓을 먹이지 말고 대용품을 사용하지 안흐면안됩니다 유아에게커염이되면 매개 위험합니다。

×

유아각기가 생기는원인에 대해서는 또다른 여러가지 학설이 잇습니다마는 대체로 어머니의 각기가 젓으로 통하야 올마지는 것으로 인정하는것이 아즉은 一반적 입니다

중세로 말하면 처음에 젓을 토합니다 그다지 만히 먹이지도 안헛것만 넘기는것이면 각기때문인 경우가 만습니다

첫서슴에는 신열이 업습니다 뒤도 순조롭게 봅니다 다지 못채고 눈 졸린것가티 눈을 뜨고 목소리가 쉽니다

이러한 때에는 맥박이 만하지고 보통 갓난아이는 생후 一주간은 백二十이상 백四十 만 一년까지는 백四十으로 그이상임으로 그이상더만흔때는 병증세입니다

또더욱이 발작적으로 무엇에 몹시 놀래어 웁니다 이러한 증세로 가다가 돌연 심장을 범하야 죽어버립니다

만일 어머니가 각기인때에는 단연 어머니젓을 먹이지말고유모를데되유모는 혈액검사를 하는것이 조흡니다

厨에對하야 (二)

朴吉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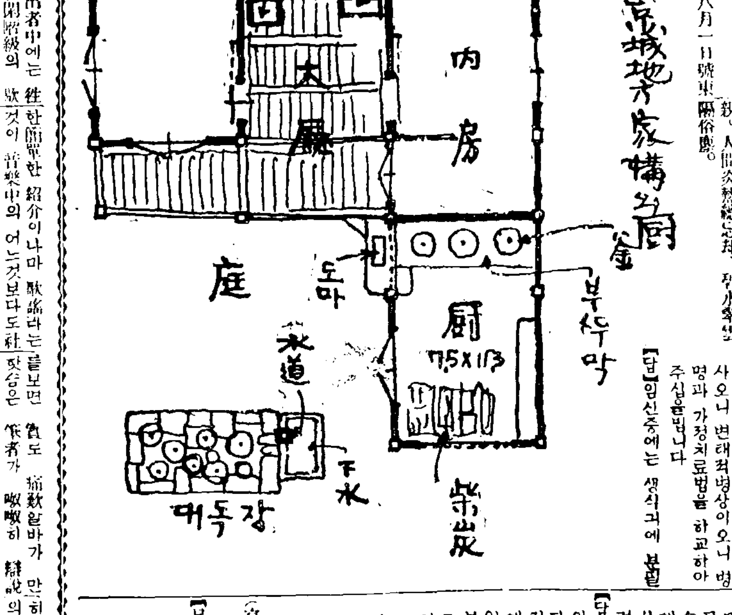
二、京城地方의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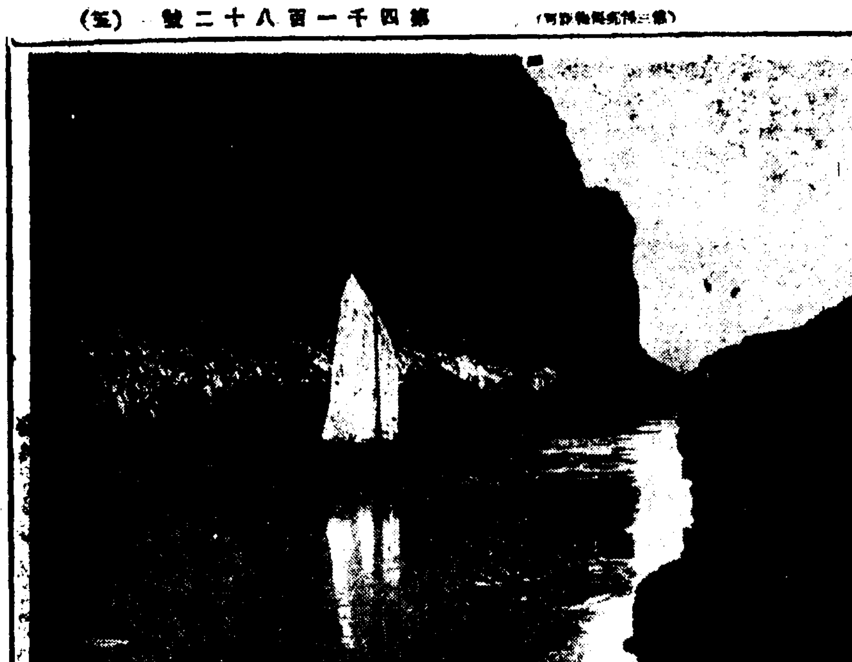
이厨房의典型은 前者와는 조허 다르니 比較的面積이 작고不便하게 配置가되엇다 第二圖는 그平面이니 大概一間半或은二間이고 內房을接한壁에 炊口가 잇서 솟이걸리엇고 그反對側에는 柴炭을싸하두는곳이 잇고內庭을面하야 出入門이 잇슬뿐이고 뒤뜰이잇는 境遇면뒤뜰로出入門이 또잇다 솟은炊口여페조고마한 살강이잇서 煙氣를빼게되엇고 그外에다른設備는 업다 食器을담어두고 饌欌과 穀類를 담어두는「뒤주」는 大廳(마루)에 잇고「장독대」水道或은 우물은 앞뜰에 잇스니 厨房은 다만 炊事에만 所用이 되고 食料調理와 配膳等은 大廳을 使用하게 되엇고 食料食器의 洗滌은 압뜰을 쓰게되엇스니 大廳 厨房 압뜰全部가厨房으로 使用됨으로 한때의食料調理에도 大廳과厨房과 압뜰을왕래하여도 四五次往來하게되는 不便하고도能率업는形式이다 厨房에서所用될器具와設備가大廳과압뜰에잇게된것은 在來의京城型의 厨房이적고도 어둡게된 理由뿐아니라『찬장』과『뒤주』가 大廳을裝飾하고『장독대』가 압뜰을裝飾한다는習慣이잇스니 이傳統의 觀念이 厨房의發達을 沮止하는 큰條件이되엇다

먼저말한 北朝鮮地方의 厨는 便利는하나 原始的形式이라 하엿으나 또한이京城型의 厨는便利하지도못한 原始形式이라고 할수밧게업다

咸興型의 厨는 居住行動의全部를容認한다 다시말하면 부엌에서산다하엿다

京城型의 厨는 厨가 厨의機能을 다 갓지못하고 大廳과뜰을 房外지라도 合하여야만 厨의 目的을 達케되니 大廳의根本目的이 家族의常居室 休養所이고 뜰은 花草가튼것을 栽培하야 우리의 住居의 慰安을 주는 即享樂할場所일것이 그 目的을 버리고 厨房의 一部로서 쉬웁게말하면 입간이 되고 말앗다 咸興型의 厨는 居住全部라하면 京城型의 厨는 厨만이厨가 아니고 家構全部가 厨房이되어잇스니 亦是 부엌에서 사는셈이다 原始形態에서 버서나지못하얏다 朝鮮全域을 通하야 그家構形態를 따라 厨房의形式이 조금식다르나 只今말한두가지 特異한典型이 잇서서 北部地方은 前者에 屬하고中部南部地方은後者에屬한것으로 볼수가잇다





紙上避暑 ……其一 三峽의雄 巫山峽 (中國四川省)

楚西山地를貫流하는揚子江의深峽

近刊의歌謠集 [一]

洪鍾仁

序 言

近者의 우리樂壇은 대단히興盛하다 여러가지點으로보아 幼稚한것도 만흘것이나 그러나年次로 音樂會의 數爻가 늘어가고 또 그音樂會가 대단히 盛況을 일우는 點으로 보아 樂壇의 繁昌을 우선 깃버하지안흘수업다 勿論 거기에는 여러가지注文이 音樂的內容과 社會的意義로보아 만흘것이나 그것은暫間保留하고 쉽게 結論을짓자면 音樂의 終局的 效果가 演出에 잇다는點에서 音樂會가 자주 열린다는것 만으로도 樂界進步의 한階段으로 近者의 우리 樂壇은 대단히 興盛하다고 一括해말한다

그러면 오늘의 이複雜貼式한社會事情에 잇서서 우리樂壇의潮流는 어데로 흐르고잇는가? 이무름에 對하야 어떤潮流를 싯고 잇다던가 하는 明答을하이고잇다 잇다고 混沌、漠然한가운데는것보다는 하는便이 無難치 안흘가 너무好意에 치우친말이라고할이도 잇슬것이나 明日의 樂壇을 다시企待하는 意味에서 今日의樂壇은 過渡期도 보자는 뜻을말함이다

다시 나는 이러한質問을 發하고저한다 中間的存在가 이미否認되고 兩極的深刻한 社會現象이 첨예하고잇는 今日의社會情狀에잇서서 樂壇의進路도 그方向이 이미決定的이것이 아닐가

一般聽衆이나 演出者中에는 性히 音樂을 有閑階級의 價한 慰安의 對象으로 看做하는 便도 업지안흐나 文化的으로 重要한 一面的 任務를 認識치 못한다면 今日의藝術로서의 意義를 否認하는데 갓가운것이 될것이다 그럼으로 音樂에 뜻을 두는者 또는 音樂을 愛好하는者는 모름즉이 音樂의 社會的意義와 今日의社會事情을 念頭에 두고 明日의 새音樂의生産(또는演出)과 選擇에 힘써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하면 觀念的이고 獨善的인『藝術의殿堂』에서만 存在하든 貴族的인 音樂에 對한 態度는 當然히 否認될것이다

×

本文에 題한바와는 以上의前言이 넘어 지나친感이不無할것이다 그러나 歌謠刊行物에 對한簡單한 紹介이나마 歌謠라는것이 音樂中의 어느것보다도社會的敎育的으로 至大한 意義를 가지고樂壇의前頭에서게되는外에 音樂에對한 全般的인 吾人의取할 態度를斷片的이나마 私見으로 提示한바이다

時代와 同時에잇고 또는時代에앞서는것은 노래(歌謠)이다 이 歌謠야말로 曲으로나 詞로나 가장 時代的 感情 風習等이 잘 表現되고 잇슴은 過去 世紀에 口傳되어온 民謠나 童謠에서도 十分 發見할수 잇는바 잇거니와 現在나 未來에 잇서서 作家가 名示되는 作品에서도勿論 그러할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歌謠를 時代의産物로서硏究의 對象될도 큰것을 認識하는 同時에 그 歌謠들이 불리워짐에 依하여 時代風潮가 만히 影響됨을 重要視 안흘수업다

挽近數年(또는十數年)을 두고 우리社會에 流行된 歌謠를보면 實로 痛歎할바가 만하엿슴은 作者가 嗷嗷히 歸說할 必要가 입술을안다 花間에 嫉惡일 低級歌謠가 多數히 流行되어(그亦 막을수업는 社會的矛盾의 한 現象이지만) 먼저 敎育者間에 큰 頭痛거리가 되엇슬것이다 그러고 一方에 學校方面의 唱歌를본다면 個中에는 日本曲(詞)의 直譯으로 朝鮮語의 本來의「리듬」外지 沒却한것이 만흠에 또한 놀랠만한일이다

이러한事情에잇서서 一般社會的으로나 敎育方面으로 健全한 歌謠의産出과移植이 얼마나 必要하엿는지 모른다(特히 學校方面의 唱歌敎材가 어느것보다 窮한것이라는것은 못지안하도알바이다)이것은 一般敎化方面으로 만이아니라 獨立한言語를가진民族이 그民族이 가진 特有한情緒를그言語를 通하야 다시曲으로 表現한다는것은 當然히잇슬일이다 換言하면 그民族의노래의 盛衰는 그民族의興亡의一端을 엿볼수잇는同時에 노래의 健全與否는 一民族의興亡에 影響하는바 不少하다함은 決코 나의創見이아니다 여기에 나는 音樂과社會의 相關關係를 直言치안흐려하되나만 過渡期的現狀에 잇는우리樂壇은 어데로갈것인가를 再考할 必要를늣긴다

그리고 새로히 삶길을찾는民衆은 새音樂 새노래를차즈리라! 나는 平凡하나마 이러한 한말로써 近者에우리樂壇의 興盛과 同時에 歌謠刊行物이 몃가지씩 出版되는것을 반가워한다 그러고이方面에 對하여 社會的으로 切實히 必要는되면서도 今日的으로는 等閑視되는듯함을 섭섭히여기어 紹介의微衷을 다하고저하는바이다

新刊紹介

紹介를希하는 冊子는 一切 本社調査部로

▲三千里 八月號 統一戰線結成前提로諸團體解體提議、師郎 한當代論客의風貌、廣東革命戰에朝鮮人士官九十名戰死記、海外同胞近況、全協의李鍝殿下擁立事件眞相、離婚回避大試驗別居制批判、等其他 京城貫鐵洞九九 三千里社發行定價二十錢振替京城四三八四番

▲朝鮮鐵道協會會誌八月號 京城吉市町一四 朝鮮鐵道協會發行振替一〇三八番

▲新聞と社會八月定價二十五錢 東京市麴町區元園町二ノ八 新聞と社會社發行振替東京一二四八一番

▲農民生活八月號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發行定價五錢振替四八九二番

▲實生活八月號定價十錢 京城樂園洞三〇〇 厚生社發行振替京城一〇九五七番

▲國民法律八月號定價十五錢 東京市芝區三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發行振替東京一六七七六番

▲우리동무 準備號八月一日號 東京市四谷五田町二ノ三 日本プロレタリア文化出版部發行定價。錢振替東京六〇六〇二番

▲米之友八月號 東京市四谷五愛住町三七 米之知識普及會發行定價二十錢振替東京八〇八七六番

詞藻

金剛山長慶庵避暑

撫佛

鯆子岩幹競四山、庵居長慶翠微間。安禪不借工夫力、講院淸風午夢閑。

其二

禪院避暑托幻身、善雲朝霧日相親。人間炎熱總忘却、碧水翠嵐

第三回 全朝鮮 男女學生作品展覽會

—開會期間— 九月廿一日부터廿七日까지

◇出品期限=九月十日

場所 東亞日報社 三層樓上

—出品種目— 中等學生部=繪畵·習字·手藝品 初等學生部=繪畵·習字·手工品

規定

一、作品에는 每一個에 命題와 出品者의 住所氏名、在籍學校名(中等、初等의別을 반드시 附記할일) 學年別、年齡、男女別을 作品裡面에 明記할것、此의 明記가업스면 考選에너치아니함

一、出品作에는 반드시 在籍學校擔任先生의 認證書를添附할것

一、出品作을 願賣하는이는 價格을 標記할것

一、出品作은 額緣에인 繪畵、表裝한習字 手藝手工品에限하야 返還하되 料金은 本社에서 負擔함、右外에는 返還料의 添附가잇드라도 一切應치아니함

一、出品作은 東亞日報社庶務部로 보내되 外封에 반드시 學生作品展出品이라고 朱書할것

等別

一等 六人

二等 十二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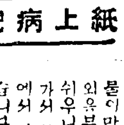
三等 十八人

選外佳作 若干人

(賞品은追後發表)

主催 東亞日報社

紙上病院



국부소양증

【문】四十一세된녀자입니다수태한지 구삭인데 수월전부터국부에 감작이소양증(搔痒症)이 잇삽더니 지금은 국부의내부에 백색의해가 처나면서 국부천체가 무한알입니다 그러나 천문의사에게 진찰을바다 약물로씨서도 하등효험이 업사오니 변태적병상이오니 병명과 가정치료법을 하교하야주십을빕니다

【답】임신중에는 생식기에 불결물이 만하저서 외음부염이 생기기 쉬우니 배임부인과의사에게 가서 치료를바다보시요 자택에서 간단히치료하는법은 업습니다 (京城帝大産婦人科教室尹泰權)

늣해산에림질도

【문】二十二세된 녀자로임신된지 八개월인데 배가남파가티 불르지못합니다 남편이 임질을앓은일이잇슨는데 그것이 무슨원인이아닐까요? 산부인과의 유명한병원과 의사는어데잇스며 해산한때병원에 입원하야 해산하라면 비용은얼마들며 남편의 임질이해산에 무슨장해나업스며 지금부터 순산할사택에방치료는 어떠케할는지 자세히 아라켜주십시요 二十二세에 초산이고로 려정입니다(南大門通林姓女)

【답】남보다배불른것이 적다고 임질이원인이라는것은업습니다 염려마시고 해산하실때까지기다려보십시요 경성부내에도 상당한고명한 산부과의원이만흡니다 대학병원에는 분一병실이라하야 입원료와 조산료가 천부무료로하는 곳이잇스며 입원료매일 一원에 조산료二十원이라는병실도이습니다 남편의림질이 잇스면 초생아의소독을충분히하면 초생아농루병(初生兒膿漏眼)이라하야 눈멉이생기며 나종에는 눈이보이지안케되는 일이잇습니다 (京城帝大産婦人科教室尹泰權)

월경때가뛰어

【문】十九세의처녀이온데 월경이 다달이지안코 二、三개월 도뛰이고 혹은四개월、五개월도뛰고 일정한긔일에 잇지안코 그러흔하지도 안습니다 오랜동안 업다가 어써다잇습라면 몸이 약으나 괴롭습니다 몸도튼튼치못합니다 이후큰병이나 되지안켓는지 가르처주십시오 치료법을 알려주십시오 (忠南번민생)

【답】처녀시대에는 월경이 불순하야지며 비만하는일이 잇사오나 병이아니오니 염려마십시오 만일 몸이불편하시거든 「오ー홈민」이라는약을사서하로에 一구람을 三회에분복하야보십시오 (京城帝大産婦人科教室尹泰權)

금계랍과 소오좀성분

【문】금계랍의 주요성분이 무엇이며 독의유무가 어떠합니까 또 무슨병에 사용 합니까 소오좀의 주요성분과 무슨병에사용하는지 자세히 가라처주옵시오 금계랍과 소오좀을 간질병에도 사용합니까

【답】금계랍(金鷄納)의주요성분이라기보다 금계랍 자신이 『키닌』이라는 약의 조선명입니다 쓰는병은「마라리아」(학질)에특효(特効)가잇습니다 소오줌은아니라 모ー든동물의 오줌이란것은 신진대사(新陳代謝)의 결과 쓸데업는 여러가지 물건을 배설(排泄)한것임으로 독(毒)이 잇습니다 따라서병에 약으로는쓰지 못합니다 금계랍과 소오줌을 다 간질병에쓰면 백가지 해는잇서도 한가지 리익은업습니다 (京城帝大內科教室金東益)

정신이헤저

【문】二十一세된 청년이온데 요사이는 원일인지 머리속에는 항상 공상이 떠나지아니하고 또 괴어덕이 부족하야 집에서공부할적에든가 또 학교교수시간에는 선생의 말이 머리속에 들어갓다가도 가풋하야서 한번공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이 무엇을 말을하얏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경쇠약은아닐까요(치료법은)

【답】공상이 심하면무슨일에든지주의가 집중되지 못하게되는것이 역시 신경쇠약입니다 이것을 치료할랴면 당신처지에적당하도록 노력하시며 항상마음을 긴장시키고 어떠한 방면이라도 조흐니 확실한인생관을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게만되면완전히낫게됩니다 (京城帝大神經科教室安鍾一)

업더저놀랜아이

【문】오는시월이 두돌되는 아이가 아즉까지 거러단기기는 커녕 변변히 서지도못합니다 그원인을 살펴보면 약一년전에 할멈에게 업힌채업더저 잇서서 곳의사에게 진찰하얏는데 별로 다친곳은 업다고하얏스나 그후 부터는 몸이 추실치못하고 발육이순조로 되지안는듯하외다 그러라고 모든동작에는 별로이상이업는듯합니다 두돌이나 되도록 거러다니지못하는 아이도잇는지 감감하외다 그러하오니 엑스광선을비추어 볼가하는데 어떠할가요 만일상한곳이 잇다하면 지금치료한다고 나흘가요 자세히 가라켜주시기를바랍니다

【답】보지안코서 무엇이라고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두돌이 되도록 것지못한다는것은 반드시 어떠한병이오 생리적이라고 볼수는 업는것이올시다 이와가티 것지못하는 원인을 일일히 말슴드리는것은 도리어 아모필요가 업슬듯하오니 한번 진찰을 바다보십시요 낫고못날것과 엑스광선으로 볼는지 안볼는지는 진찰후라야 알것이올시다 (京城帝大小兒科教室李先根)

숨이찬하

【문】十九세인데 三四개월전부터 『개월이면 二十八九일에 지 숨찹습니다 무슨약이조흔지가르처시고약을먹어야조켓습니까운동하야 조켓습니까

【답】숨을마히수는것은 슈면이 지지못한 증거입니다 극심신이 피곤하든지 섭셕이불규측하고 긴장미가 부족하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때에 더욱 심합니다 그럼으로 적당한일을하며휴양하회면쪄도쓰고알마즌운동이조흡니다 그러나마도한운동마심려는조치못합니다 (京城帝大神經科教室安鍾一)

지상병원규정

一、순조선문으로 쓰십시오

一、엽서로만 하십시오

一、한엽서에 한가지병만 물으십시오

一、남녀의구별과 년령을 쌔어노치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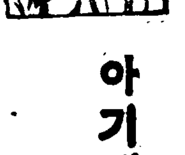
一、반신료는 첨부마십시오 지상발표 외에는 개인대답은 첨버로아니합니다

一、고문케씨에게 직접묻지마십시오

一、최근六개월안에 한번 발표된것은 다시 발표치안습니다

아기네 (一三四)

김동인작 이상범화



신무대왕(神武大王)

궁파(弓巴) (六)

청해진까지 가서 장군은 즉시로 궁파를 찻엇다。

『영장장군이 영감께뵈려 왓다고 곳엿주어라』

하엿다。청직이는 들어갓다가 다시나왓다。

『맛나시지 못하겟답니다』

청직이의 대답은 이것이엇다。

장군은 다시 청직이를 달랫다。

『왜 못맛나시겟다는지도 짐작이 간다。다시 한번 들어가서 영장장군도 왕께 죄를 짓고 몸을 빼처서 여기까지 도망해 온것이라고 엿주어라 지금 사해는 모도 왕의 아래 왕의 명령을 복종해서、다른데피할곳이업어서 영감께나 몸을 의탁하려왓다고 다시 잘 엿주어보아라』

청직이는 다시 들어갓다。조금뒤에 안에서는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낫다。그것은 분명히궁파의 소리엇다。

『염치없는 자식이지。별별 잡트리를 다해서 내딸년을 궁에서 몰아내고 무슨 염치로 여기를 온달말이냐。썩 돌아 가라고 그래라』

청직이는 또 나왓다。궁파는 어떤일이 잇을지라도 못맛나겟다는말을 전하엿다。그러나 궁파를 맛나서 왕께 받은 사명을 다하여야 할 장군은 다시한번 청직이를 새두고 궁파를 달랫다。

『노엽도 짐작이 못가는 배는 아니지만 따님을 내보낼때는나는 병알아서 집에잇어서왓지도 못한일―알기만 해드면한사코 말려서 그런 불상사는안생기도록해슬것이다。나도 지금왕께 죄를 입고 할수없이 왕께 배반하려는 사람、영감과 내가 합력을 해서 하께 원수를 갑으면 오죽 좃지않겟나。다시 한번 들어가서 잘여쭈와라』

이러케 세번 네번을 청직이는 장군과 궁파의새를 왕복하엿다。

그마즈막에 청직이는 나와서 장군에게 궁파의 말로서 『사실로 반기를 들려왓느냐』 고물엇다。

거기대하여 장군은 자긔의한 보경을 청직이에게보이며 반려를 들 예산이아니면 위 조상전래의 칼까지 가지고왓겟느냐고 하엿다。

청직이는 그말을 가지고 또 궁파에게로들어갓다 들어갓든 청직이는 다시나왓다。

『그러면 잠깐 들어 오시랍니다』

청직이는 이러케말하엿다。

장군은 마음으로 미소를하엿다。그리고 청직이를 따라서 들어 갓다。

청직이가 장군을 이끌어드린 방은 넓다란방이엇다。거기 궁파는 자긔의 위력을 보이기 위하여 문앞 문뒤에 창들은 피수를 세우고 뜰아래도 활이며 창으로 무장한 파수들을 세워 두엇다。그들으로 청직이를 따라 들어가며 장군은 눈꺼 한번도 움즉이지않엇다。그러고 고요한 발거룸과 고요한 태도와 고요한 안색으로 따랏다。

넓다란 방안은 텅 뷔어 잇엇다。청직이의가르키는 곳으로가 앉엇지만 방안에는 장군 한사람밖에는 아모도없엇다。밖에세워둔 파수들은 마치 짝어세운듯이 움즉임없이 서 잇엇다。

『하하! 기껏 나한테 위엄성을 보이라는구나』

장군은 이러케생각하고 다시 미소 하엿다。이러케 위엄성을 보이라는 이상에는 중뒤에 궁파가 들어올 때는며 위엄성을 보일것이며 혹은 처음부터 자기를 나려 누를지는 모르겟다고 짐작하고 장군은 속으로 코우슴첫다。

『궁파야 어서 와서 내 왕명을 받어라 왕명으로 너를 때려 여기까지 온 내다。네가 아모리 위엄성을 보이랴 해도 영장의 마음은 그만큼은 우서워하엿다

어떠케 [illegible]하며 요히 허리를 [illegible] 것고 [illegible]

國際的舞臺에印첫 우리의마라손意氣

좀더 싸워슬 金恩培의餘裕! 이때、海內엔 마라손熱澎漲

「마라손」의조선。어제보도로 우리의「마라손」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진출을 도되엇다。이와동시에 우리와 조선은「마라손의조선」을 이루엇스니 김군이 만일 진천(津田)의 면(面)선수와의 작전국 앞서지말고 각즈하나 뒤다가 최후 몃「마일」에 스파—도를 내자는 깔림자면 과장약한자로서의 쉬한작전에 응하지만앗드면 우리의 김군이 웅당 좀 더 우등을 유력햇슬것이라는 일반의 섭평은 진지、했동군 출도에잇서서 한층더 김군을 위하야 아니 우리의 선수를 위하야 애석하고 분앙을 막을수업다고 하지아니할것인가 어찌되엇든 우리는「마라손」으로서 나이어린 한낫주학생선수로하여금 당당히 세계의 一류선수 十八개국의 二十八명과 싸워 패하 十九개국 二十二명의 선수를 물리친것만으로도 처음진출에대한 장거이오 깃분소식이라할것이다。이러한 지음에 우리해내에서는「마라손」의 신수가 부산에서부터 출발하야 신의주를 목표로 지금 산막을넘어나 경외가도를 달리고잇스며 또부산으로부터 동해안선 금강산 왕복마라손의 장거에 두선수가 올라잇다 이러하야 완전히 우리의 젊은조선이의 의긔는 마라손으로 발휘하고잇다 마라손! 마라손! 우리조선으로하여금 마라손의국을 세울때는 자금이 아닌가한다

七十臺自轉車 出迎裡安着

수백명의 장엄한 환영 新幕다온마라손兩君

【신막】우리조선의땅 남쪽부산(釜山)역까지 마저서 열광적 환영 산으로부터 북쪽신의주까지 二二을 하얏스며 일반각계를망라하 천리가넘는 장거리마라손의 상아 二백여명이 十러장청이채운 도에 오른 문사풍국주학 (鬥川)령까지 경겸이 진을쳐고 서군(崇實中學) 류하중의 서정국(徐)과 황군의 만세를 불러 신막천(延興)(二○)군과 경성으로부터동지에 뼤어난「마라손」열을 노피해한 황자동(黃慈東)(二一) 량군 어 른쇄서이순」을 이로키엇다 은八일오전十시에 본보금교(金郊)지국을 떠나 한포(汗浦)남천(南川)각지분국을 거치여 동일오후八시반에 원긔왕성한 태도로 무사이 당지에 착하얏다 원긔량선수의 도착을 마즈러 신막류학생 김인국(金仁國)(二○)군과 전긔회사(電氣會社)에 근무하는 김홍긔(金弘起)(二○) 김해철(金大爀)(二○)군은 남천(南川)까지 마라손으로 출영하얏스며 신막실업야구단(新幕實業野球團)의 주장고정은(高貞恩)씨 이하 단원전부와 시민측으로 류학서(柳學瑞)등 七十여명이 자전차(自轉車)로몰개(分)출영하며 금천서 출영한청년四

兩選手 金郊着發 四十여대의 自轉車로迎送

【금천】지난七일오전 八시에 문산(汶山)을 스타—트한 마라손의 두용사 서정국(徐廷國)황자동(黃慈東)량군은 홍로와가튼 더위를 무릅쓰고 뛰여오다가 개성(開城)을 들러오한후 떠나오다가 황군이 치하야 무려 불곳도업는 로상에서 무한한고

◇…마라손의徐、黃兩君 (上)金郊에到着 ▲(下)開城通過

七일오전 八시十五분에 문산(汶山)을떠난 마라손선수 서정국(徐廷國)황자동(黃慈東)량군은 내려쪼이는 폭양에 조금도피로한긔색이업시 주로까지 출영한 본사개성지국 자전거대와 마라손선수장주형(張柱衡)군과학계 동일오전령시 三十五분에 수백명관중의 환호성리에 개성지국에 무사히도착하야 간단히점심을마친후 약두시간 다리를쉬인뒤 오후二시十五분에 긔념사진을찍으며 다시 금교(金郊)를 향하야 원긔왕청하게 출발하얏다

◇開城通過 【개성】 十시에출발하야 二十여리까지 전송하얏다한다

마라손으로 金剛山을往復

東海岸에新코—스開拓 七日에釜山을出發

【부산】 부산 신의주간을 주파하는 서정국군이 코—스의 반을 주파한 지난七일오전八시에 또마라손의선수부산목도(牧島)공보교출신으로 동경일본대학고등공업학교(東京日大高等工業學校) 학생 김삼룡(金三龍)(二○)군과 부산중학교(釜山中學校) 성철득(成鐵得)(二○)량군은 본보 부산지국후원으로 금강산(金剛山)왕복 마라손을 스타트하엿는데 당일에다수한 친구들의 전송과 선수오청근(吳聖根)군이 동래까지 전송마라손으로 용감잇게 그북의더운날과 험한 도로를 정복하얏다 이러하야 동해안을씨고서 새로운 마라손코—스를 개척하게되엇다 그동이 주파할 전코—스는 다음과갓다고한다

釜山—金剛山(往)

第一日(七日)釜山—慶州
第二日(八日)慶州—盈德
第三日(九日)盈德—沃源里
第四日(十日)沃源里—江陵
第五日(十一日)江陵—杆城
第六日(十二日)杆城—高城
第七日(十三日)高城—金剛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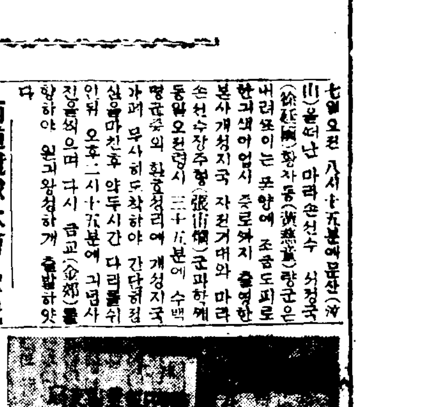
同(復路)

第八日(十四日)高城—襄陽
第九日(十五日)襄陽—三陟
第十日(十六日)三陟—平海里
第十一日(十七日)平海里—浦項
第十二日(十八日)浦項—蔚山
第十三日(十九日)蔚山—釜山
주코—스 四八○키로

◇寫眞 兩君의釜山出發光景

西道蹴球大會

【중화】 중화군간동시(中和郡看東市)에서는 간동청년회주최로 제四회 서조선 축구대회를 오는九일간 동공보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馬車夫即死 구루마에치어

【김제】 전북김제역전 신풍리(新豊里)에사는 박파동(朴判同)(八)이라는사람은 지난八일오후九시쯤 상강면 향산에 동을실리가서 길을넘하고말이달려오다가 마츰넘어지자 마자가 관동의배로지나가서 참사를하얏다고 한다

夢金浦에 水泳講習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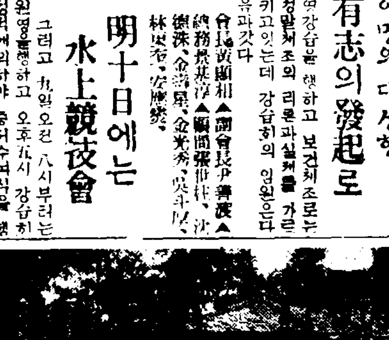
회원 五十여명의 대성황 그곳有志의發起로

동해바다의 송도원(松濤園)과 아울러 서쪽바다로 이름잇는 몽금포(夢金浦)에서는 작년에 본사 후원으로 수상 경기협회(水協) 주최로 수영강습회를 열엇든바 금년에는 주최측의사정으로 중지하얏는데 몽금포 유지제씨의 발긔로수영강습회(水泳講習會)를 지난二일부터 八일까지 열고 강사로는 송도고보(松都高普)선생으로서 조선체육연구회와 수영의러사인 허량현(許亮憲)씨가열심으로 지도하고잇는데 파서온사람가운데서 뜻하지안케 五十여명의 다수에달하얏다한다 一주일동안은 보건체조와 수영강습을 행하고 보건체조를 가르키고잇는데 강습회의 임원은다음과갓다

會長黃蘭相▲副會長尹善渡▲總務崔基淳▲顧問張世根、沈德洙、金光秀、吳斗泳、林秉宰、安麟燮

明十日에는 水上競技會

그리고 九일오전 八시부터 오후五시 강습회 원영(遠泳)을행하고 경회에의하야 중서수여식을 행하고 아어서원영성적을 발표할터이다 十일에는 오전九시부터 十一일에 수상경기대회를열고



◇寫眞은 指定認可를申請한 江華新明幼稚園의近況

水產疑獄의 會社를撤廢!

드듸어 해산하기로 작정 來廿七日株主總會

【청진】 함북유비수산계(油肥水産界)에 一대충동을일으킨 의옥사건(疑獄事件)은 송하사장(松下社長)、설천무(設川務)등 二十여명이 동중역가 관계자들이 목하 청진형무소(淸津刑務所)에 수용중이라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이 어민대중과 당업자들의 원부로서 되어진 공판회사(共販會社)는 드듸어 해산하기로 작정하고 오는二十七일 주주총회를열기로 하얏다한다

는 우울동이 바로장면의가 승할터이라한다 를 탄승하고 十二월에해산을

準備進行되는 開城商工會議所

창립사무를 정식개시 ◇來九月頃은創立

【개성】 개성상공회의소(開城商工會議所) 창립사무는 두보한바와가티 착착진행되어 지난 시내상업조합(商業組合)의 두상에림시사무소를 정하고 정식으로 창립사무를 진행하게 되엇다 발군회원자격사정을 진행하는중인데 느저도 약二개월간이면 완전부뭇날듯 하다함으로오는 一월경에나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역원등을 선거하게 될터이라한다 회원자격은 국세와 영업세년 七원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이면 되는데 방금 개성부내의유권자는 一천백二十二인으로 그가운데 일본인은법인에二인 개인 三十이원이라 향으로세력다가튼것은 문제될것도 업스려니와 그리고 회비부과에 대하야는 법문상으로 표준세금의 반분外지를 부과시길수 잇지만개성은 특수사정을 참작하야 一개년경비를 조선서최저러는 청진회의소의 그년예산보다 훨신적어서 약三백천원가량으로 표준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중임으로전 조선에서 류례업시 회비부과를 싸게할것이라한다

蟻島少年蹴球 勇進A團優勝

【경동】 시외독섬 아성소년회(蟻島我聲少年會)주최의 제四회 소년축구대회는 지난七일오전十시부터 동리 보통학교 운동장에서 류재균(劉載均)씨 사회와 전회우승한 리문회(里門會)의 우승기반환식이 잇슨후 경기는 막이열니여 장내는 인기가 찬발하얏다 리문회(里門會)는 제三회까지 연二회를거듭 우승하엿슴으로 금회외우승권이 절대한긔대를가진만큼 동회은 불롱주원단까지도 할긔가 장내를소연케 하엿는데 결국악전고투한결과 최후의결승은 리문대 용진A팀(里門對勇進A)로되어 오후五시부터 시작되어 전반전에는 승부가 업시 후반전에서 동一점의 득점으로 二十분만에 용진군의 운지 十二분만에 용진군의 득점이 득점되어 올인二점이 더一로 용진군(勇進A軍)이 우승하고 六시五十분에 폐회하얏다고

오늘그날

八月十日(水曜)

天氣豫報

[illegible]

라디오

【十日】(水曜)▲午前六時라디오體操▲十時氣象通報▲十時四十五分料理獻立▲十一時十五分衛生講座▲十一時五十分市況(一)▲午後一時十五分運動競技豫備▲二時五十五分運動競技豫備▲四時天氣予報

올림픽뉴—스

陸上部는終了 米國이優勝

十一種目選手權을잡어서 日本은第六位이다

【로스·앤젤레스七日發電通】 올림픽 陸上競技는 七日終了하얏는데 米國은 十一種目에 優勝하야陸의覇權을 持續하얏스며 第二位는 三種目에 優勝한 芬蘭、第三位는一種目에 優勝하고二等四點을得한 英國으로決定、日本은 三段跳에優勝하얏스나 二等數로 英國에敗하야 三等數만흔 加奈陀 다음으로 第六位가되엇다 優勝順序와 選手權 獲得數、得點數는 다음과 갓다

選手權獲得國別

1、米國一一▲2、芬蘭三▲3、英國二▲4、愛蘭二▲5、加奈陀一▲6、日本一▲7、伊太利一▲8、亞爾然丁一▲9、波蘭一

各國의得點數

米國一七四▲芬蘭六○▲英國四七▲獨逸三九▲日本三一▲加奈陀三○▲伊太利一九▲瑞典一七▲愛蘭一五▲亞爾然丁九▲佛蘭七▲南阿六▲瑞西六▲波蘭六▲라트비아五▲比律賓四▲체코슬로바키아四▲匈牙利二▲和蘭二▲뉴질랜드一▲濠洲一

女子七日의得點

米國一八▲加奈陀九▲和蘭六▲英國四▲日本二▲南阿二▲獨逸一

權君의외올死走에 外紙는大賞讚

침다운스포—츠精神에

【로스、앤젤레스七日發電通】 今日外字大會에 日本에서갈 選手들의 態度는外人及 各外字新聞이 매우稱讚을 하고잇는데陸上競技의 五千米決勝에서 竹中選手가『러러번』選手에게 一周를뒤지고도 그후코—스를 讓步하야 妨害하지안토록 조심하면서 最後까지 眞劍한力走를繼續하야競走를마친것이라든가 陸上最終의마라손競走에權泰夏選手가『고올』直前에서 力盡하야 잡버지면서 그래도勇氣를 보이며決勝點에 다은것은 特히外字新聞도 特筆大書하야 權選手를賞讚하고잇다 ◇寫眞은權泰夏君

兩足을접질러 그러나元氣

權泰夏君倒後

【로스、앤젤레스七日發電通】 公園委에 收容된『마라손』의 權泰夏選手는 極度의疲勞에 兩足이접질러 얼른恢復되지 안헛는데病院에入院시키려고 幹部는自動車를보내엇는데 權君은『關係치안타』고버티엇슴으로 暫時休息한後 午後七時半 어쨋든올림픽의宿舍로돌아갓다

津田選手의感想

【로스、앤젤레스七日發電通】 宿望을드되어 이루지못하고五着된津田選手는말하되

今日은 好調이엇스나 六哩부터 온살가터나온權君이 十哩頃에서쫓지와 그뒤로오든 金君과나는 걱정을하면서 뛰엇다 정말뛰어야할 二十哩以後부터 三人이간즈러니 버티어뛰지못하얏슴은 遺憾이다 權君이 好調에만맛고 일죽이부터아프로 나선것은 무엇보다도遺憾이다 三人이간즈러니 갓드면 計劃대로 누구든지가三着까지에는 들엇슬것인데 一最後의一哩半은 눈이어두어젓다 지금도 자우만삽버지는것갓다

女百米自决勝

1마디손(米)1分06秒○(올림픽新記錄)▲2도뎬(和)▲3디비일(米)▲4막김(米)▲5벨트(濠)▲6매스칼(南阿)

飛板飛込决勝

【올림픽水泳場(로스·앤젤레스)八日發電通】 水上競技第八日八日午前八時半(日本時間九日午前一時半)부터 男子飛板飛込決勝을行한바 그成績은다음과갓다

1、가릿젠 (米)161點35
2、스마스 (米)158點54
3、데그너 (米)151點82
4、피러프스 (加)134點64
5、에자르 (獨)134點30
6、小林 (日)133點76
7、푸사— (佛)128點66
8、生江 (日)125點18

四百自由型豫選

【로스앤젤레스八日發電通】
【第一組】 1橫山隆志(日)4分53秒2(올림픽新記錄)▲2길프라(米)4分53秒3
【第二組】 1크라브(米)4分59秒8(올림픽新記錄)▲2杉本盛(日)5分02秒(올림픽新記錄)
【第三組】 1칼톤(濠)4分59秒8(올림픽新記錄)▲2코스토리(伊)
【第四組】 1타리스(佛)4分53秒3(올림픽新記錄)▲2퍼렌!(伊)
【第五組】 1라어안(濠)5分01秒9▲2大橫田勉(日)5分06秒3
大橫田은病中에出場하얏다

하키第一回戰 日本勝

【로스·앤젤리스八日發電通】 日本對英하키一回戰九對二로 日本이 勝하야先般印度와의 經合에 比較하면 놀라울程度로 第二位를 獲得하리라고본다

明日의올림픽

—【朝鮮時間 八月十日】—

◇水上競技
午前3:00 四百米自由型(男)決勝
同 3:30 百米背泳(女)選豫
同 4:00 워터폴로
同 8:00 模範跳技板飛(男)
同 8:30 八百米릴레이(男)決勝
同 9.00 二百米平泳(女)決勝
同 9:20 워터폴로
◇벤트오래이스
同 1:00 와 7.00
◇拳鬪
午前7:00 와 午後1.00
◇其他
同 1.00 體操
同 7:00 (番外)라크로스
同 6.00 펜싱
同 5:00 요트競走

普專럭비部 仁川서合宿練習

普專의最近인 普成專門學校럭비部는 大阪花園의全日本高專大會의 準備를 다시 決心으로 明十日부터 九月五日까지 仁川金谷運動場에서 附督李鍾鉉氏 指導下에 主將金應淳以下部員二十五名은 每日二回씩猛練習을 開始할터이다

養正高普럭비部

朝鮮人中等學校唯一의 强豪인 養正高普 럭비 蹴球部는 코취 李鍾鉉氏監督下에 主將崔東鎬君以下二十五名도 明十日부터九月一日까지 仁川 公設運動場에서每日二回씩猛練習을繼續할터이라한다

都市野球準決 神戶4A 臺北0

【東京八日發電通】 都市對抗野球準決勝인 臺北對神戶戰은 午後一時부터 球審湯淺、壘審池田、森田 臺北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A對零으로 神戶勝(閉戰二時四十五分)

大連8A 名古屋7

名古屋對大連戰은 午後三時四十分부터 球審池田、壘審森田井口 名古屋先攻으로 開始한바 八A對七로 大連勝(閉戰六時)

◇決勝戰 大連對 神戶의決勝戰은 九日午後 一時부터 開始할터이다

早大6A遞信2

早大 第二軍對遞信 野球戰은 昨八日 午後四時卅分 京城運動場에서 審判(球)龜井(壘)馬場、伊藤、遞信先攻으로 開始한바六A二로 遞信敗北하얏다(閉戰五時五十二分)

備考 二壘打太田△一壘打大月、洗武△遵球 石井△併殺早大一、遞信一△박石井一

早大			(先)遞信
8竹谷	打數31	32	6田代
4小島	安打7	5	4瀧野
3太田	犧打0	0	5大島
9中島	三振2	6	8光武
7熊谷	四死4	2	3田岡
6大月	盜壘5	0	7田中
5西田	遺失1	2	1高野
2松田	殘壘6	3	9瀬田
1佐佐木			2石井

得點 遞 000 001 001=2
得點 早 023 100 00A=6A

年年히進步된 水泳練習會

成績자못良好

第二高普 第二高普에서는 例年과가티 元山松濤園에서 第十二回 水泳練習을 擧行하얏는데 參加生徒七十三名、先生四名、指導者로全健植、石孝澄兩君의 多數어엇스며 例年에업는好成績을獲得하고 八月二日朝 無事히歸京하얏다한다 그成績은 다음과갓다한다

五哩遠泳成功者(十五名)金顯泰、崔廷善、朴昌圭、朴文鎬、李榮鎬、趙用國、金仁根、王宗舜、朴蘭完、朴商勛、申鐵均、金東俊、鄭鍾濟、南宮壕、李禮吉
三哩遠泳成功者(四名)朴洪均、元世泳、吳駿榮、金鍾河
一哩遠泳成功者(十名)方遊、朴仁濩、俞陵榮、李友浩、金顯組、金甚完、朴舜吉、朴尙彦、朴元林、姜準

以上二十九名中 驚異할것은 九名을除한外는 全部가 初心者로서 그와가티成績을 바엇다하며 이밧게도五百米、五米를해엄친者가 三十數名에達하며 最高級인 一級의榮冠을 授與된者는 崔廷善、金顯泰兩君이라한다

中央高普 中央高普水泳部에서는 例年과가티 七月十七日부터 七月三十日까지 元山松濤園 水泳場에서夏季 水泳練習을行한바 一般的으로 特히良好한成績을 거두엇는데 대개 그成績을 發表하면 다음과갓다

一級申亨吉▲二級金炳舜、宋泳俊▲三級李夏成、朴春植、金永柱、朴奎熙、張日鎭、李成範、宋秉閣、李鍾默、梁泳彦、鄭泰聖▲四級朴鐵焄外八名▲五級金炳煥外九名

遠泳의成績도甚히良好하야五哩遠泳成功者가 十名、三哩遠泳成功者 名、五町遠泳成功者十名、其他二百米八名、五十米二名이라한다

五哩遠泳成功者申亨吉、金炳舜、宋泳俊、李夏成、朴春植、朴奎熙、宋秉閣、李鍾默、梁泳彦、鄭泰聖▲三哩遠泳成功者金永柱、張日鎭、李成範

長篇小說 흙

春園作 靑田畵

(흙젓길)【二二】

라이 울엇다。닭은 무엇을 먹고 사나、닭도 한갑어머니처럼 기름ㅅ기가 업슬것이다—이러케 숭은 생각하엿다。

동편 하늘에 남ㅅ빛이 돈다。이 것은 서울서는 못 보던 빛이다。그 남ㅅ빛이 점점 짙어져서 자주ㅅ빛으로 변해온다。산들의 모양이 더욱 분명하게、그러나 아직도 검은 한 빛으로 푸른 하늘 면에 낡아난다。

흐르는 물 줄어도 좀더 소리를 내이는 것 갓앗다。

늦은 여름 새벽에 보는 골안개가 일어낫다。아직 안개가 일어나기에는 이른때지마는 놉흔 산과 강이 잇는 탓인가、여기저기 부유스름한 안개가 피어올랏다。오른다는 것 보다도 소리업이 긔어오른다。

살여울 물이 하늘의 남ㅅ빛을 받아 아침 빛을 보이다。

벌어먹는지。심히 궁금하엿다。살여울 동네는 메투리를 삼는 것을 부업을 삼앗으나 무산이 난 뒤어서그런지마는 메투리를 못 보앗다。

동편 하늘은 더욱 밝아지고 붉어진다。멀지아니해서 동그란빛에 차고、열에 차고 여평에 찬 해가 솟아올 것이다。

「그 해가 오르는 것어나 보고 가자」

하고 숭은 소나무가에 쪼내어면、산꼿숭이에 올라갓다。여긔도 숭이가 서울로 가기 전에는 소나무가 만히 잇어서 여름 이면 늙은이와 어린애들이 흔아와 놀던 곳이다。지금은 오직 꾸부려진 소나무 한개 만이 서잇을 뿐이다。아아 뭄시 꾸부려진 덕에 찌히 가를면한 모양이냐、팔아먹을 수 잇는 것은 다 팔아먹엇구나!」

어디서 벌서 말 방울 소리가 들린다。

무넘이로서 살여울을 건너 방아머리、곤모루를 돌아 검은오리 장으로 통한 큰 길이 바로 이 동네 옆으로 지나가게된다。아마 무넘이서 자고 검은오리 장을 보려고 가는 장ㅅ돌림ㅅ군의 짐싣은 당나귀 방울 소릴것이다。그 당나귀 등에는 인조견、광목、고무신、당기、얼레빗、참빗、부채등속이 떠어진 보재기에 싸워서 실렷을 것이오 그 뒤에는、숭의 생각은 막혓다。

그 뒤에는 예전 같으면 집세기 신한에 갓모와 갓끈이 붙어잇는 꽃지 딸인 느린 사람이 바를 것이다。그러나 지금이야 그럴게 차려올라고。숭은 그 당나귀 뒤를 따르는 사람의 모양이 도모지 생각에 뜨지를 아니하였다。

「따랑、따랑」

당나귀 방울 소리가 골 안개 속으로 멀어간다。숭의 생각도 그 소리를 따라 갓다。

신작로가 나고 자동차가 다니고、짐은 럭까지 댕기게 된 오늘 날에는 조선명에 말과 당나귀의 방울ㅅ소리도 듣기가 드믈게 되것다。그 것이 문명의 진보에당한 일이것지마는 숭에게는 그 것도 아까왓다。그 당나귀를

하고 숭은 흙은 소나무ㅅ 뿌리에 걸터 앉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몰은 밤새도록 흙인 떨어야 머리 곤직곤직한데 그래도 새벽 바람이 선들 선들 하다。이를 밤새 새우는 숭의 머리는 무거웟다。눈도 앞앗다。그러나 가슴ㅅ속은 형언할수 없는 불안과 괴로움으로 꽉엇다。

「나는 장차 어찌 할 것이고」

하고 숭은 평창하게 빛을 발하고 거드름을 피우던 힌ㅅ달이 고개로 울려솟는데ㅅ 대목을 바라보았다。여러해 막혓던 자여의 아름다! 숭의 가슴은 눈과 함께 환하게 트이는것 같았다。

「그 빛、그 힘!」

하고 시인어닌 숭은 간단한 찬미의 단어로 아유래를 찬미하였다。

독장산、삼태을 빠져내장을 —모도 빛과 힘에 깨엇다。힌하다。강과 논에ㅅ빛과 이슬 구슬이 모도 환한 빛에 오로 빛낫다。메위와 물것과 몬실으로 밤새에 부쩍 많아 올 몽비도 히칠 없고 영어난 사람 모양으로 빛 속에 께어났다。

「인제 동네로 내려가자」

하고 숭은 일어낫다。

ClibPDF - www.fastio.com

神聖堂七大名藥 신성당칠대명약

림질 대하증

근치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물너드리오
유명한독일구로벨박사가발견햇습니다

千圓懸賞募集 천원현상모집

소화칠년삼월일일이전에조선에서발견제약허가맛후것이나일본내지에서이입허가맛흔매약(림질약)으로서정당한처방내용이세계의학계에서인정하는어느점으로보드라도신성당의구로벨이상가는약이잇다는것을증명하는분에게 천원을드리겟습니다

남녀만성림질、부인적백하、대하증、남녀랭병、오좀소태월경고르지못한대며、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다하여보고 별별약을다써도 백약이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누분은 이것저것 주저할것업시 안심하고 제일먼저 독일구로벨박사가 최근에 세계적대신발명하신 KUROBER(구로벨)을쓰오 구로벨은 천하에둘도업는착신긔한약이라백발백중、만병이면 만명이다—틀림업시낫다 이러한 자신(自信)을 어든결과 환자의안심과 신용을 엇거위하야 만일에 무효면절대책임지고 두말업시 전부돈을물러드리는보증서를 약포에 첨부하얏스니 절니로안심하고쓰오、구로벨의특장은 一、수십년된고질특히재발한 만성림질과대하증은물론、림독성으로된 방광염고환염(산증)섭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나팔관염、관절염、뇨도협착등이제거제거낫는 참천하에업는신긔한점 二、이약은 다른약가치 지리하게오래안먹고 만급성간에 아무리 오래된고질만성제중이라도 일주일이상먹을필요가업고절대로재발안하는점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안상하는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 절대로 조곰도 다른부작용이 조곰도업슴으로 위장이약한분이 만히먹어도 틀림하나안난다는말은 근치한여러분의 찬송하는점이오 그런대 이약이속치되고다른약으로는절대로근치안되는리류를 발하면주사는미약하고 부작용이잇고 세척은뇨도외균만 씻슬뿐이오 잘못하면 산증이되고 다른먹는약은 위장만상하고 조금도낫지안코 한약은 살균제가업스니 나을리가업고 산약은위험만하얏지 낫지안소 그러나 구로벨박사약은 오신만배로푸러도 이분간에 균이즉사전멸하며 혈관으로 도라균을유인하야 살균하는작용이잇서서 여하한고질병이라도 단시간에근치되니 일각이라도 빨리근치하시압

약가 만성과 긔타제중에 五원、대하증、랭병긔타부인병제중에五원、 급성오좀소태에三원、 지방송료선금은 무료대금인환은 삼십전(五원이나三원이나—일주일분)

매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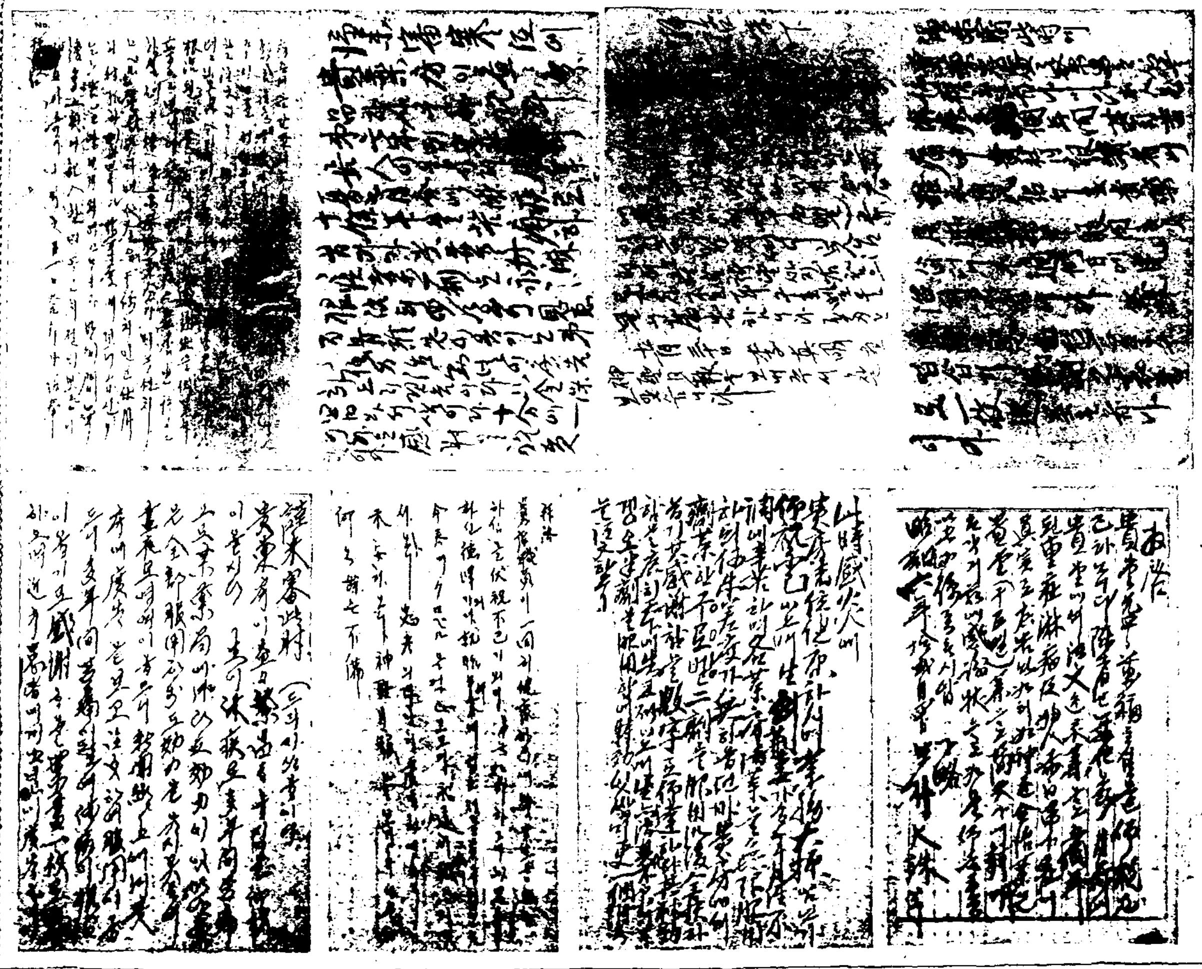
근치보증 무효반금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 선조의유전 또는전염으로 발생하야 대개는 사루바루상 즉육백륙호주사를 십여대나마저야 겨우일시적으로 눌너지지만 완치가안되고 여러번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 매독이업서지지 안함을보드라도 륙백륙호가지고는 불완전안것이 증명된다 그런대 이불완전한점을 업세기위하야 수십년고심연구한결과 독일푸로다박사가 주사가아니고 먹는약으로 일주일에 완전히근치하고 결코재발안되는 미독약(푸로다—)PROTER를 발명하엿다 여러가지로 치료하여도 안나어 고통하는분은 곳시험하여보시요 자신잇는약임으로 환자의안심과 신용을엇기위하야 만일에 무효하면 절대책임지고 돈을물너드리는게약서를 약포에너엇습니다 염려마시고쓰시오

이런분은 쓰시오 ◎남녀의국부가 허럿스며 가려운대 눈이희미하고 팔다리가쑤시고 목이쟁기고 머리가빠지며 여기저기종기가터지는데 또창병감창코취는대등에 신효합니다

약가 중중엔오원、경중엔삼원、송료선금이면 무료대금인환이면삼십전

이감사장이신효한약이라는것을확실히증명합니다



부족증·폐병·륵막염에

나오쎄—가뎨일이요

독일나오쎄 박사가새로발명하엿습니다

만일무효면돈을물너드립니다

폐병은 불치의난병으로 일년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대 종래의치료법이 부적당하엿다 입때까지는 즉전환부의균만 죽일나고드럿스나 그래서 는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할피료도잇지만은 한편으로 몸도보하야 원긔를도아주어야한다 그뿐더러 자식(蠶食)하는부분을막는법이 새로발명되엿다 즉살균보혈강장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일시에하여야된다 이작용을식히는대는 종내에는 여러가지치료법이잇섯다 제일에약먹어서곳치는법음식을잘먹는법 일광욕료법 산소료법 가루숨흡입료법등 여러가지가잇는법대약한가지로 이여러가지작용을 하는법을 독일나오쎄—박사가오십년간 고심연구한결과 이번에세계작대발명한것이다 즉삼기의중병으로금명간하는환자도 약을먹기시작하야 단열흘동안에 완치하착신기한약이다 이러한자선이잇슴으로 환자의안심과 신용을엇기위하야 만일에 무효하면 두말업시절대로돈을물너드리는게약서를 약포에느엇스니 안심하시고 별별약을다쓰고 백방으로 모든치료를다하여도 안나어 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 속히나오쎄를쓰시오 이런분은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침하고 담을밧고 열이나고 몸이파리하여지고 혈담뱃고 피를토하고 숨이차고 원기업고 가슴이아푸고 역구리가결니고 갈비때도압푸고 수족이찬분 즉부족증 폐결핵 폐병 륵막염 복막염 뇌점병

약가 초긔용오원 이긔용십원 삼긔용이십원 송료는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선금이면무료

直輸入元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六番地ノ二

神聖堂藥品部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보양·보음 젊어지는약

가이자가데일이오

근치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물너드리오 독일가이자박사가세계적신발명

사람이처음몸이 건강하여야 하고싶은일을하는사람이적고 약한분이만어진다 [illegible]

기침·담 천식엔

엣치쎄—데일

근치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물너드리오 독일엣치쎄—박사가신발명

남녀노소업시 대개기침을하는것인데 [illegible]

체증 속병에

새로발명한것—오를쓰오

만일무효면돈을물너드리오

[illegible]

치질엔

엥구루가데일이오

근치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물너드리오 독일엥구루박사신발명

[illegible]

經濟用語 (六)

◇株式

……朝取短期取引이라는것은 그날그날 사고팔고하야 定期取引에서 사고판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런데 ……

東京短期

東京短期는 朝鮮短期取引과 같이 東京株式取引所에서 사고파는 新株가 取引되는것이며 ……

◇質疑應答 이經濟用語의 解說을 될수있는대로 알기쉽게하라는것이 主眼點인것은 머리ㅅ말에 보아서 알바이다 그러나 或은 머리에 잘안들어가는 句節이 있을는지 모른다 이런境遇에는 돈費업시 葉書로 質問하여주시면 紙面의 形便을 따라서 懇切하라고 또는 다음으로 只今까지 解說中에도 解說이 分明치안커든 곳質問하여주기를 歡迎하는바이다

米國財界活氣 持續? 一時?

連日報道하는바가티 米國市場에 活氣는 二十六弗臺로 떠어지고 一面紐育株式의 活氣와 米棉의 「스팟」株價騰이나 米棉四圓四十五仙의 暴騰을 나타냇다 이消息을 接한 日本에서도 生絲綿絲等商品이며 株式의 暴騰도 出現하엿다 그러나 別報와가티 米國의對佛現送이 다시되는만큼 米國의活氣가 永續될는지 一時的이냐가 가장注目의焦點이되어잇다

對佛正貨의 現送再開始

【紐育六日發電通】 紐育聯邦準備銀行에서 六日發表한 金輸出入日報에 依하면 暫時中絶하엿든 對佛正貨現送이 또되어 六千萬弗을 六日에 積出하엿다 이것은 「이어마크」中에서 積出된것으로 이現送은 直接巴佛高에 影響이업스나 對佛爲替關係가 逆轉할것을 말하는것으로 注目을 끌고잇다 그러고 日英間에서 輸入하엿스나 少額이다

英資本의 流入

【倫敦發電】 한때는安定되엇든 磅價가 떨어저가는데 이原因은倫敦市場의 主로米國의 有價證券을 購入하는外에 英國資本이 紐育으로옴겨가는外닭이다 이박게 原因으로는 過般英國政府가 斷行한戰債低利借換의結果에 關한數字가 公式으로發表안되고 이點에 對하야 倫敦市場은 發表의期限이나 事實은 外國市場에서 公式數字의發表가 업슴은 借換의結果가 豫想보다 낫분外닭이라고함으로 磅時勢에 影響된것이다

紐育株式强保

【紐育八日發電通】 狂騰의 週間을 보내이고 月曜에 反動來年豫想과反對로 躍動을 持續하고 外部의買注文이 繼續하엿다 買氣價는 이以上前週의勢를 못쓴모양이다 알하서 今後어되까지 値上에 買進하는것이아닌것갓다 四十四弗臺에 一時躍騰하엿든「스틸」이 反落하고止價는 前日보다 八分의一高이어잇습에 不過하고 鐵米利加電信株는 二弗四分의高로 百十弗二分의一「아나콘다」八分五高와 十弗이다

▲米日爲替反撥

【紐育八日發電報聯合】 二十六弗이라는 未曾有의 低價로떨어젓든 米日爲替는 八日一擧에 二十七仙反撥의 二十六弗二十七仙으로되엇다

米棉時勢 大暴騰出現

收穫激減豫想으로

【紐育八日發電通】 政府의 第一回米棉收穫豫想公表가 十年以來의 最低記錄인 一千百三十萬俵에 驚倒하야 一時는 一俵五弗의分의高騰을 示하엿든데 止値는 八十六「포인트」高(四圓四十五錢高)로 現物도 八十五「포인트」高이엇다

米棉收穫 千百萬俵

十年後低記錄

【華盛頓八日發電通】 農務省及國務院棉花局調査의 米棉收穫豫想은 八日에 알에와가티 發表되엇다 ……市場暴騰하엿다(單位千俵)
八月一日現在豫想 一一、三〇六 昨年收穫과比較減五、七九〇 最近五個年平均收穫高와比較減二二五二作況은 大體로 不良하다

綿絲躍騰

五十圓臺出現

【東京九日發聯合】 輸出의良好와 生產業의 減少로良好이튼 綿絲는生絲暴騰 米棉의 狂騰에 刺戟되야 前日以來暴騰을 開始하야 九日朝는 米棉이一氣에八十五「포인트」暴騰이고 一斤人氣를刺戟하니 先限四圓高인 五十圓五十錢으로 現物하고 暴騰五十圓臺를 나타냇다

朝鮮粟의 出荷

大阪에서 依賴

粟의出廻期가 되엇슴으로 朝鮮物產協會에서 京城商議內同協會에 朝鮮粟은 大阪地方에서 好評을 밧는中임으로 出荷勸誘를 依賴하얏는데 出荷注意의要項이 如左하다
(一)出荷朝粟은 糧粟用에 供給……

朝鮮米의 移入을 專賣

또는移入許可方策으로

◇帝國農會의 決議

日本帝國農會에서는 今明의 移入許可라는 具體的決議案外에 八日間 臨時總會를 열고 臨時議會에 對한 同會의 農村救濟運動의 最後結果를 내라는것이며 이에提出할農村匡救策에 關한建議案은 알에와가티 決定하엿다 이議案은 應急對策을 主로한 것이며 그中注目할것은 從來의 朝鮮、臺灣米移入統制에對한 抽象的決議를 移入米의專賣 또는 許可制로 改正하는것이라 한다

▲農產物價에 關한事項
(一)米穀政策緊急措置
(가)米穀法을 改正하야 最低價格은 米穀生產費를 基礎로 定하라는것
(나)米穀調節의目的을 達成함에 充分케하기爲하야 米穀需給調節特別會計法을改正하야 最高額을 超越할수 잇게할것
(다)生產者로하여금 正租또는 米의貯藏을 하게하기爲하야 低利資金의供給또는 獎勵金支給의方法을 講究할일
(라)米價를 適當히 維持하기爲하야 朝鮮臺灣으로부터 移入되는 米에對하야 專賣또는 移入許可의方策을 세울일
(二)蠶價를維持키爲하야 徹底한政策을 세울일
(三)一般農產物에對하야 生產과 販賣의 統制를 圖할일
(四)一般農產物에對한輸送運賃의 低減을 圖할일

▲農家負擔輕減에 關한事項
(一)田畓地租를 三個年間 半減할일
(二)田畓地租附加稅의制限率을 營業收益稅附加稅의 制限과가트程度로 低下하고 또宅地와田畓間의地租附加稅의不均一賦課에關한 勅令을 撤廢할일
(三)家屋稅와 農家의 負擔에 關하는 雜種稅를 適當히減廢할일
(四)義務敎育費國庫負擔을三個年間 現在의 倍額으로하고 戶數別의 輕減에 充用케할일
(五)町村農業補習敎育費國庫補助를 增額할일
(六)町村에對한國庫交附金을 增額할일

▲農家負債整理에 關한事項
(一)農村에貸付한 政府의各種低資는 三年間償還을 延期하고 이동안의利子를 免除할일
(二)勸銀農銀貸付元利償還三個年延期와 延滯利子를 免除할일
(三)低資의供給에依하야 高利債의借換을하게할일
(四)負債整理委員會에서 當하다고認한整理의方法에 從치안는 債務者에對한 其他負債整理의促進上必要한 法令의發布와適切한施設을할일
(第四는省略)

朝郵對外航路

거의空船이다

朝郵의 對外航路가 上海、浦鹽、天津等의 航路……

日本郵貯利下 一分二厘內定

南遞相이 決意

【南通東京發電報】 八日南遞相은 郵便貯金利下率은 一分二厘引下로 十月一日로부터 實施할郵의 三分으로하라고 決意한모양이다

京城米穀取引所發議

會員組織으로해가지고 京城穀商主體로

京城延市場이 取引所令에 依하야 今年末까지가 猶豫期間임으로 이存續方策에對하야 市場當局者들은 苦心하야 오든바 京城米穀取引所設立期成同盟會를 組織하고 九日午前十一時半 朝鮮「호텔」에서 經濟記者團에 알에와가티 發表하얏다
▲聲明 朝鮮產物의大宗인米穀의 聲價機關으로 今年一月로부터 實施된 朝鮮取引所法은 가장緊要한法令임을 不拘하고 京城은 株式會社朝鮮取引所가 存在로 그營業期間旣得權을 尊重하야 新令의機能에 活치못하고 特히米穀取引은 同會社旣設營業所인 仁川府에 限定되어 朝鮮首都로政治經濟의 中心地인 京城府를 不顧함으로 道內當業者는 勿論 一般市民도 無意味하게 朝鮮의 關係에 屈從하게된것은 社會構成上 甚히不合理로 道民의 潰憾 또苦痛으로 認하야 期成會를 組織하고 京城穀物商組合을 主體로하는 會員組織의 許申請에 絶對應援하고 그目的의貫徹을期함
△實行委員=平井、池田、戶島△組合側=高井、洪泰賢、松浦、今村、野萩△五厘組=京城穀物商組合、京城白米小賣商組合、京城精米組合、京城白米商組合、京城穀物商組合
△後援側=京城商工協會、京城商工聯合會、京城穀物商聯合會
▲決議 京城米穀取引所設立의主旨에 贊成하고 알에와가튼決議를한다
職 京城米穀取引所設立의 熱望하고 京城穀物商組合을 主體로하는同取引所의 免許申請에 絶對應援하고 그目的의貫徹을期함

朝取側의 意嚮

京城穀物延市場取引所昇格運動에對하야 朝鮮取引所의 意嚮을 들으면 알에와갓다
朝取로서는 延市場의 昇格은 朝取로서는 不利이나 朝取로서는 鬪爭할 必要가업다

希國銀行利下

【아데네八日發電報聯合】 希臘國立銀行은 지나간二月公定割引步合을 一分내려서 一割一分으로하엿는대 八日에 다시一割로 내리는것을 發表하엿다

海航路는 거의積荷가업고 上海航路는 芝罘에 寄港한外닭에 少量의積荷가잇스나 上海는性質에 荷動이업고 浦鹽航路는 禁止的關稅로 全然貨物이업다고한다

日本在米 七百廿萬石

八月一日現在量

【東京八日發電通】 農林省發表에依하면 八月一日現在 日本在米概算額調査에對하야 八月正午까지 報告가잇섯는데 靑森、山形、茨城、栃木、群馬、神奈川、新潟、石川、福井、長野、滋賀、兵庫、山口、德島、香川、佐賀、長崎、宮崎十八地方의 狀況은알에와갓다
▲日本米七百一萬六千五百石 ▲朝鮮米十二萬七十八石 ▲臺灣米五萬三千三百六十七石 ▲外國米二萬二千八百三十五石 ▲計七百二十一萬七百八十石

京城組銀金融

七月貸出預金

京城組合銀行七月末 現在의 預金貸出額은 預金七千四百五十二萬 貸出九千百六萬七千圓으로 前年同月에比較하야 預金은……

東拓總會附議事項

東拓에서는 今月二十二日 東京本社에서 定期株主總會를열……

(一)今年上半期營業報告書、貸借對照表、財產目錄、損益計算書承認의件
(二)同期利益金處分案決定의件
(三)退職重役慰勞金贈呈의件

取引停止

【京城府町一丁目】 ……二十六番地電氣業小川內之七 ……

今日의市況

一九三二年八月九日

株式(單位十錢)	後場止價	前後場比較
朝新	─	─
東新	一四六	一五高
期米(仁川、單位錢)	後場止價	前後場比較
先限	一六八〇	一八高

正米(三等、單位錢)	標準時價	前後場比較
京城	一六五〇	一〇高
仁川	一六五〇	一〇高
商品(單位十錢)	後場止價	前後場比較
綿絲(先)	[illegible]	
고무FAQ	三六〇	

株式 時勢와市況 【十八日】

商品高好感으로 伸氣가 潑潑

東新百四十四圓

前場暴騰

昨後場에暴騰하엿든바 今朝에도 東京大阪의 暴騰을 反映하야 東新一圓九十錢高인 百四十四圓、朝新十五圓六十錢의 寄付가잇섯다가 反動되어 大引에 三圓九十錢이엇고 朝鮮은 不變의七圓六十錢、拓新五圓五十錢이엇다

後場伸惱

前場에 暴騰하얏든바 今場에도 東新은 다시百四十四圓臺를 恢復하얏스나 反賣의念慮로 四圓臺를 保持치못하고 三圓臺로 軟退하얏다

警動된買人氣

高價警戒相伴

米國財界의活氣를 말하야 生絲綿絲가 躍騰이繼續됨을보고 株界의人氣가 警動되어 東新百四十四圓臺를 突破하고도 이미四圓臺까지 暴勢가繼續되다 그러나 分一로 强硬하고 「스립」株가 保勢이엇스나 米棉이 一氣에四圓四十五錢高로 大暴騰하엿슴으로 商品高도 綿絲가 狂騰하는等 商品高를 出現하엿다 이와가튼 經濟界를 作하야 株界도 東新이 新高價를 비롯하야 諸株高를 보는것이다 그러나 高價에 反賣가 잇슬것을 念慮하고 利喰에 相作됨으로 當地는 東新에對한 人氣를 이며 諸株는 依然히 閑散의 場面을 묘하얏다

米棉高의 影響

今朝의 外電은 銀塊十七片二……

朝新의 續無勢

朝鮮取引所新株에 商氣가 相當하야 東新高이나 顯著한 追隨가업시 低價에서 오락가락할 뿐이다 이것은 朝取의 業績에 期待를가질수업다고보는사람이 만흔外닭이다 ……

朝取前場賣買

賣方 買方
◇朝新 白井二〇黃八 白井五〇山口 ……
◇東新 大林二〇白井 大林一二〇白 ……
◇拓新 古野五〇田道 ……
京證三〇 德泰三〇計三〇

朝取短期前場步調

◇朝新＝一六〇─一七〇─一六〇─一六〇
◇東新＝一四六〇─一四六〇─一四五〇─一四五〇─一四五〇
◇拓新＝寄不成─一五〇

朝取短期後場步調

◇東新＝一四五〇─一四五〇─一四四〇─一四四〇
◇拓新＝寄不成─一五〇

大阪短期前場步調

◇大新＝[illegible]
◇鐘新＝[illegible]
◇日産＝[illegible]
◇東新＝[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illegible]
◇鐘新＝[illegible]
◇日産＝[illegible]
◇東新＝[illegible]

東京公債市況

【東京九日發電報聯合】 國債市價正午氣配
甲號五分利 九三、四五
第二回五分利 九〇、四五
二回四分利 七七、七〇
十七年物 七七、六五
十八年物 ─
二十二年物 九五、一〇
二十八年物 九四、三〇
佛貨四分利 一三四、九〇

期米 賣買가 閑散

前場伸惱

昨後場에 九錢이 底强히 止하엿는데 今朝大阪初付가 二十二圓二十一錢에 强硬하야 十九圓八十六錢으로 十八錢에 大阪二三節八十六錢七錢細 ……

天候放心不許

豐凶이繼續發生

今日의 米價는 今後의天候여하에 ……

從前惰力의 低迷

環境一變이 逆目處

昨日來의根據初付에 上放하고 小口買이 伸惱低迷하야 小口出하다 ……

米豆餘塵

▲하로밤지나면 ……

後場强硬

大阪의 先物도 前止보다 九錢高 十九圓八十九錢에 始한되어 ……

朝取期米各店賣合

◇當 賣方 買方 ……

京城延取

前場

堂島前場情報

【大阪九日發電報】 ……

米 各地의 商狀

京城單騰

正米人氣는 十錢高인 ……

仁川續高

昨今精白米의 ……

大邱强含

南浦昂騰

木浦漸騰

群山昂騰

釜山保勢

朝取短期取引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illegible]

代引算定日步

[illegible]

朝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各地正米時勢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地方米時勢

[illegible]

京城延取

[illegible]

京城正米時勢

[illegible]

仁川正米時勢

[illegible]

仁川大豆時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京城綿布時勢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對外爲替

海外經濟

滿洲各地市況

京城手形交換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日本金利

[illegible]